

통성경 이론을 적용한 성경 학습방법이 가정교회에 미치는 영향

남일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배영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Youngjune Ba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ong Bible Reading for Family Church:
A Case Study of Namil Church, Geumsan, Korea

Youngjune Bae

Namil Church, Geumsan, Korea

Korean churches are in crisis. The growth rate of the churches has been stagnated and their membership is declining. In addition, church members are moving one church to another without showing a loyalty to their mother churches. Some move to mega churches, and others to small churches. People move to mega churches because they are equipped with a large parking lot, all kinds of convenient facilities, and also specialized church schools for their children, but why would others move to small ones? Perhaps, it is because they are not content with mega chur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family churches as a type of small churches that are growing fastest these days. This author will here define what family churches are and present historical as well as biblical grounds for them. In fact, family churches are not a new type of churches appearing to get over the limitations of existing ones. Family churches are one of the primitive forms of churches that the Bible is talking about. As a matter of fact, they have appeared in a variety of forms in the long history of churches. This researcher here suggests family churches as a way of returning to the essence of churches that the Bible is talking about.

This thesis is intended to help you to understand family churches and also

examine how 'Tong Bible' learning influences family churches. Namil Church actually cam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ible through the process of 'Tong Bible' learning. It, in fact, allowed the members of the family church to form fellowship and have identity as a covenant community. In conclusion, to share the covenants with family as a covenant community, 'Tong Bible' learning can be a good alternative for churches attempting to return to the essence of the Bible.

국문초록

통성경 이론을 적용한 성경 학습과정이 가정교회에 미치는 영향
남일교회 사례 연구

배영준

남일교회. 금산

요즘 교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거나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이동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대형교회의 이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형교회로의 이동이다. 대형교회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자녀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회학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동한다고 하지만 소형교회로는 왜 이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들에 대한 염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소형교회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며 가정교회의 정의와 역사, 성경적 근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정교회는 기존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교회가 아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오랜 시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했다. 본 연구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가정교회를 제시한다.

이 논문은 가정교회의 이해와 동시에 ‘통성경’ 학습과정이

가정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남일교회는

‘통성경’의 학습과정을 통해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은 가정교회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그 언약을 공유하는 방법으로서의

‘통성경’ 학습방법은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는 교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 연구	4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5
논문의 구조	6
II. 가정교회의 이해	7
가정교회란?	7
가정교회의 성서적 이해	17
가정교회의 교회사적 이해	36
III. 통(通)성경의 이해	44
통(通)이란 무엇인가?	44
통(通)의 방법으로 본 성경통독	52
통성경 학습방법	64
IV. 가정교회에서의 통성경 실행 과정: 남일교회	80
통성경의 적용	80
상담	107
상담의 분석과 효과	118
V. 요약 및 결론	124

연구의 요약	124
연구의 결론	125
부록	129
참고 문헌	151

표 목차

<표1> 공시와 통시의 이해	55
<표 2> 역사 순으로 본 구약통독의 순서	58
<표3> 역사 순으로 본 신약통독의 순서	60
<표4> 7Tracks의 큰 그림	71
<표5> 20개의 하나님의 마음.....	73
<표6> 40개의 성경 이야기 즐기기.....	75
<표7> 성경 읽고 정리하기 과제 예시.....	85
<표8> 『통성경 길라잡이』를 읽고 정리하기 과제의 예시	102

감사의 글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였던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저에게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업 때마다 탁월한 내용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열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믿어 주시고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남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좋은 친구와 형, 동생이 되어 준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 김전숙 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저의 소중한 보석인 유진과 유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들, 배창규 목사님, 이보월 사모님, 김은환 권사님, 노명순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한마음교회 김승룡 목사님과 호산나교회 노명자 목사님, 정완순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미처 언급하지 못한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분들의 이름을 모두 새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대신 제 깊은 감사의 말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배영준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 기독교가 소개된 지 130여 년 만에 한국의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랍게 성장했다. 1990년대 한국 교회는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상당수였고, 단일 교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배출했다. 한국교회는 서구의 교회를 이어서 선교의 미래를 지고 갈 차세대 교회로 지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교회 또한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감소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목회자의 성 윤리 문제, 금전에 관한 문제, 목회자의 세습 문제 등 교회 안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다수의 대형교회들이 정치 문제에까지 뛰어들면서 교회는 사회의 큰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만 교회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로 가야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성경학자인 조병호 목사와 레너드 스윗 박사는 “ ‘오직 성경으로(Solo Scriptura)’ 에 주목하라”¹고 이야기 했다. 교회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도 본질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보다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 그 속에서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² 교회의 침체라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래의 모습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임을 이야기한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준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교회를 바라보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를 모토로 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 중에서도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무지한 회중들을 일깨우는 데에 일조했다. 성경이라는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의 노력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 철옹성 같았던 중세 천 년의 가톨릭교회를 변화시킨 것이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맞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보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교회가 오늘날 맞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진단하며 보다 나은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귀를

¹ 박정흠, “오직 성경으로’에 주목하라,” 한국기독교공보, 2014.1.13.

² 이대웅,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 기독교 ‘제3의 물결,’” 크리스천 투데이 2014.1.13.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많은 방법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통(通)성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성경’이 어떠한 개념에 의해 구성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가정 문제이다. 현대의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간 관계의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끈끈한 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예를 들어 주일날 한 가정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대로, 자녀들은 자녀 대로, 각 자의 부서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한다. 온 가족이 한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은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신앙적인 대화는 ‘예배에 잘 참석하는지’, ‘헌금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등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 한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신앙의 형식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교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듯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통성경’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적용되는 교회의 모습도 성경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가정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교회’의 정의와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성경’을 가정교회에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면서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인 ‘가정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통성경’의 방법이 고안된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침체된 교회를 살리고 단절된 가정 관계와 신앙의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 연구

이제까지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 서양의 인식방법과 동양의 인식방법을 함께 사용한 방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통성경은 동양과 서양의 인식방법을 통합하여 성경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 연구의 방법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통성경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성경’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에서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운 조병호 저서들을 주로 참고했다. 가정교회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 자료들과 성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이다. 문헌 연구는 성경 읽기의 새로운 장을 연 조병호의 ‘통(通)성경’ 방법론을 사용하려 한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편집하여 성경의 시간을 통시와 공시로 엮은 그의 ‘7Tracks’는 여타 다른 성경 연구의 방법들과 다른 탁월성을 지닌다. 뿐 만 아니라 7개의 STEP을 통해 성경을 전체와 부분으로 엮어가는 그의 성경 연구 방법은 교인들에게 보다 쉬운 성경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조병호가 이루어 놓은 ‘통성경’ 방법을 토대로 그의

저서와 관련 서적들, 논문 자료와 학술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 다른 축인

‘가정교회’는 성서와 함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출판한 가정교회에 관한 서적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가정교회에 대해 저술한 책자와 참고문헌, 논문과 학술 자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사례연구는 필자의 교회에서 진행한 ‘1년 1독 새벽기도회’와 ‘통성경 강의’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의 범위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고안된 ‘통(通)성경’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병호가 그동안 주장해 온 ‘통성경’의 개념과 ‘통’의 방법론, ‘통’의 방법으로 본 성경통독이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통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는 ‘7Tracks’를 중심으로 ‘7STEPS’의 과정으로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통성경’의 실제에서는 ‘1년 1독 새벽기도회’와 ‘통성경 강의’를 가정교회에서 실행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가정교회’는 여러 가지 유형과 범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즉 전적인 가정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이를 연결하는 대규모의 교회(집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가정교회’의 사례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필자의 교회에서 적용된 사례와 또 그 구성원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에 사례연구의 제한성이 있음을 밝힌다.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 한다.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의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제 II 장에서는 가정교회의 이해 부분으로 가정교회 정의와 유형들 가정교회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정교회의 성서적 이해, 가정교회의 교회사적 이해 등을 살펴볼 것이다. 제 III 장에서는 통성경의 이해 부분으로 ‘통성경이란 무엇인지?’ 통의 방법으로 살펴본 성경통독과 통성경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 IV 장에서는 통성경의 적용부분으로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남일교회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1년 1독 새벽기도회’ 와 ‘통성경 강의’ 의 진행의 실제와 사례 분석을 다루게 된다. 제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가정교회의 이해

가정교회란?

본 장에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흔히 ‘가정교회’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매우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정교회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등장했고, 소그룹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도 가정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를 생각할 때 ‘셀 교회’나 ‘목장교회’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가정교회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와 여러 유형과 교회사적 이해, 성서적 이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가정교회의 정의

가정교회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일단 구분되는 큰 특징은 그 모임의 규모가 기존의 일반 회중교회와는 다르고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가정교회는 그 규모로 보았을 때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에 속한다. 채이석은 소그룹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며,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이며,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이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며, 발견을 위한 모임이며,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¹

소그룹은 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모임이고,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단위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소그룹과 가정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최영기는 소그룹과 가정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그룹은 기성교회의 산하 기관이나 혹은 선교 단체 등의 지엽적인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가정교회는 교회 산하에 있는 한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역할을 다 한다.²

소그룹과 가정교회는 그 규모 면에서 작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그룹이 일반적인 교회의 작은 하부 기관에 머무는 데에 반해, 가정교회는 일반적인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는 완전히 다른 개체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럼 학자들이나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가정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Wolfgang Simson은 가정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한 방식이다. 가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가정교회는 제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유기적인 방식이다³

Simson이 말하는 가정교회는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삶을 전제로 한다. 교회를

¹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19-20.

²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66.

³ Wolfgang Simson,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황진기 역, *가정교회* 초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41.

규정하는 교리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제도적 교회와 구별되는 ‘유기적인 면’이다.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다. 가정교회는 생명이 없는 조직이나 기계가 아니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몸, 즉 ‘유기적인 존재’⁴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정교회는 기존의 제도적 교회와 비교했을 때 유기적이라는 탁월성이 있다. 한국에서 가정교회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는 최상태 목사는 가정교회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가정교회를 정의한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의 형태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처럼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리드하는 그룹으로 하여금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⁵

그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의 회복, 즉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친교 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회복하며, 만인사제직에 입각하여 훈련된 평신도가 일반 평신도나 초신자들을 이끄는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가정교회를 정의를 정리하자면 규모적으로는 기존의 회중교회보다 작지만,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역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로서 그 구조가 유기적이며, 기존 교회보다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즉 친교와 역동성을 회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

⁴ Simson,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23.

⁵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66.

가정교회의 유형

가정교회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그 형태는 주로 가정교회와 초대교회 이후 생겨난 제도적 교회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교회 밖의 가정교회’와 ‘교회를 떠난 가정교회’, 그리고 ‘교회 안의 가정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교회 밖의 가정교회

캐나다 가정교회(Church house Canada)의 책임자인 래드 지디로(Rad Zdero)는 신약 시대에 형성된 가정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사 속에서 걸쳐 제도적 교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⁶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제도적 교회는 인간 중심적 생각을 따름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제도적 교회 밖에 존재하면서 신약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해왔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기독교가 큰 탈선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종하였으며 그의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를 옹호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위한 커다란 건물을 지어주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소수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던 교회는 영구적으로 건물에서 모임을 갖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가정을 중심으로 성도

⁶ Rad Zdero, *The Global House Church Movement*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4), 59-60.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신학정론* 26 (2008), 87에서 재인용.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모이던 가정교회가 제도화된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 체제를 교회에 도입함으로써,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상반된 타락한 길을 가게 되었다고 본다. 그로부터 제도적 교회를 떠나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Simson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의 역사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순수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는 가정교회를 억누르고 박해한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한다.⁷

이들은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제도화된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교개혁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가정교회가 제도적 교회의 힘에 의해 가장자리로 소외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신약교회의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그 정신이 결국 16세기에 들어와 종교개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영적 생명력을 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제도적 교회의 개혁을 추구해 온 한 세력과 오류로 가득 찬 그곳을 떠나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종교개혁과 함께 재현된 것이다. ‘교회 밖의 가정교회’ 주창자들은 구교의 횡포에 반대하여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과거 제도적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제도적 교회가 지녔던 문제점들을 답습하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⁷ Simson,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114.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90에서 재인용.

오히려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는 세력들을 핍박했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세력들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의 주류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계속 ‘교회 밖의 교회’로 남아 소외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제도화된 교회를 떠나 성경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자신들이 미완성으로 끝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유형: 교회를 떠난 가정교회

영국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섰던 길버트 커비(Gilbert Kirby)는 1970년에 영국에서 생겨난 가정교회 운동의 뿌리를 60년대의 ‘은사주의 운동’(Charismatic Movement)에서 찾는다.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전통적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심각한 형식주의에 빠져있으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를 완전히 떠나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조직화에 힘을 쏟은 교회가 신약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 배교의 길을 걸어왔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성경의 은사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사도시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떠난 가정교회’의 모습이다.⁹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Pentecostal Movement)은 곧 교단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50년도에는 비교단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출현해 1970년대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가정교회가 영국에서 나타났다. 앤드류

⁸ Gilbert Kirby, *"The Emergence of the House Church Movement" in the Challenge of the House Churches* (Oxford: Latimer House, 1988), 4.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99에서 재인용.

⁹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99.

워커(Andrew Walker)는 교단화를 반대하던 신오순절주의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가정교회의 출현은 ‘초대교회 복고운동’의 한 일환이며, 19세기의 ‘가톨릭 사도 교회’와 ‘형제단운동’에 그 뿌리를 둔다고 설명했다.¹⁰ 이 가정교회는 자율적으로 교회를 떠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모였던 다양한 은사주의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앞에서 살펴본 ‘교회 밖의 가정교회’와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교회 밖의 가정교회’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 한다면, ‘교회를 떠난 가정교회’는 사도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제도적 교회를 부정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동기는 매우 다르다. ‘교회를 떠난 가정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특별한 신적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교회를 떠난 가정교회’ 주창자들 역시 종교개혁을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태동으로 본다. 교회의 전통에 눌러서 제 자리를 빼앗겼던 성경의 가치가 성경의 진리를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생명력을 찾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성경적 교회로 회복되는 시작점으로 보고, 그 후에 나타난 은사운동들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교회가 점층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¹¹ 그들은 은사의 회복과 사도권의 회복이 신약 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인 교회로의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믿는다.

¹⁰ Andrew Walker, *Restoring the Kingdom: The Radical Christianity of the House Church Movement* (Guildford, England: Eagle Publishing, 1988), 51.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101에서 재인용.

¹¹ Walker, *Restoring the Kingdom*, 145.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103에서 재인용.

세 번째 유형: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가정교회 학자인 델 버키(Del Birkey)는 사회학적 집단 구분의 개념을 교회에 적용한다. 그 중 하나는 교회의 ‘일차적 집단’으로서, 구성원 사이의 친밀감을 특징으로 하는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이차적 집단’으로서 조직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들이 형식적이며 차가운 인간관계로 맺어진 그룹이다. ‘일차적 집단’은 초대 교회 초기에 나타난 가정교회의 모습이다.

‘이차적 집단’은 3세기부터 급작스럽게 발전되어 교회 건물, 조직, 성직자 계급 제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주류를 이뤄 온 전통적 성전교회를 가리킨다.¹²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주창자들은 소그룹이 지난 가치가 아주 특별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그룹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구상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소그룹을 가정교회의 뿌리로 여긴다.

로버트 뱅크스와 줄리아 뱅크스(Robert Banks and Julia Banks)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잘 견뎌서 결국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정교회 운동에 있었다고 주장한다.¹³ 가정교회의 구심력이 그들을 해체하려 했던 로마의 핍박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주창자들은 루터를 중요한 인물로 본다. 1526년에 출판한 『Vorrede zur Deutschen Messe』(독일 미사와 예배 질서에 대한 그의 서언)에서 그는 세 종류의 예배를 제안한다. 그 중 루터는 세 번째 종류의

¹² Del Birkey, *The House Church: A Model for Renewing the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8) 64-65.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108에서 재인용.

¹³ 로버트 뱅크스·줄리아 뱅크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1999), 74.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10에서 재인용.

예배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예배를 언급하는데, 그가 제안한 교회의 모습은 소그룹 활성화를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유형의 가정교회 주창자들은 요한 웨슬리를 루터와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로 꼽는다. 웨슬리가 루터의 개혁 사상을 구체화시켜 기존의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어 독자적인 교회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예를 보여줬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⁴ 박승로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이 가정교회는 기존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완전히 독립된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살아 있는 하나의 교회 내 세포(Cell)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 운동의 이론과 구역 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특성상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기능적인 장점들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다.¹⁵

가정교회를 제도적 교회와 따로 떨어진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다. 기존의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가정교회를 주장하여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가정교회는 제도적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소그룹으로써의 가정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때 동시에 제도적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그룹 운동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가정교회의 장점을 살리는 교회를 말한다.

빌 백헴은 “가정교회는 대그룹 교회 내의 소그룹 교회가 존재하는 ‘두

¹⁴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114.

¹⁵ 박승로, *가정교회* (서울: 세복, 2002), 17.

날개를 가진 교회’ 이다” 라고 하였다.¹⁶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고 또 그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대그룹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초대교회의 장점을 살리는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의 교회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래리 크라이더는(Larry Kreider)는 이러한 모임을 ‘가정교회 네트워크’ 라고 표현했다. 그는 ‘가정교회 네트워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가정교회는 항상 작은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정집보다 더 큰 어떤 모임이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큰 모임으로 만나는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모임으로 만나는 가정교회 예배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고 전체 회중들이나 가정교회 네트워크들에게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¹⁷

초대교회 때에 지역에 있는 작은 가정모임을 묶어서 그 지역 교회라 불렀던 것처럼 소규모의 가정교회가 존재하면서 그 가정교회는 그 지역의 다른 가정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큰 모임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큰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각 가정교회의 부족한 면들을 보충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가정교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유형의 가정교회 중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의 구조를 가진 가정교회, 즉 초대교회의 가정의 의미를 살리는 교회와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의 모임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연구하려고 한다. 특히 소그룹의 모임은 식구를 의미하는 ‘가정교회’ 로 지칭하고, 그 가정교회 내에 언약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통성경의

¹⁶ 빌 베헤,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32-33.

¹⁷ 래리 크라이더, 플로이드 맥클링, *가정교회란*, 유정자 역 (서울: 셰키나출판사, 2009), 118.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은 통성경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며 훈련되게 되고, 훈련된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수함으로써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를 이루게 된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교회는 연합된 모습의 대그룹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러한 수많은 작은 가정교회의 결합체인 큰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정교회의 성서적 이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로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최초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Brenda B. Colijn는 히브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고대 히브리의 가족에는 남편, 아내, 자녀(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남편의 부모, 남편의 형제와 가족, 남편의 미혼 누이,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다수의 부인들과 첩들,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족도 포함될 수도 있었다.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 연결된 경우 이외의 가족에는 종들과 노예, 손님 (집 안에 함께 거주하는 타지인, 가족의 돌봄의 대상이 되거나 종종 가족의 고용인)이 포함되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가족은 대가족, 종 또는 노예, 고객과 손님들을 포함했다. 가족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될 수 있었다.¹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작은 가정을 생각한다. 또는 넓은 의미로 친척들을 포함하는 큰 가정을 생각하는데 비해 히브리

¹⁸ Brenda B. Colijn, "Family in the Bible: A Brief Survey," *Ashland Theological Journal* (2004), 73.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세계* 88 (2016), 398에서 재인용.

가정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가정임을 알 수 있다. Colijn은 성경의 가정을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성경의 가족은 (1) 하나님의 복의 근원¹⁹이며, (2) 계시의 통로²⁰가 되고 (3) 믿음의 가족²¹인 교회로 완성되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김영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생육과 번성이었다. 바로 이 생육과 번성이 가족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시는 진원지가 된 것이다. 야곱의 경우를 보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기까지 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가족을 통해서 전해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면서 가족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통로임을 밝혀주었다.²² 둘째, 가족은 계시가 전달되는 통로였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볼 수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5명의 여인,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리아와 같은 이들은 죄인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다.²³ 그리고 셋째,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으로 동일시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셨다²⁴ 이는 가족이 혈연에서 출발하여 비혈연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혈연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²⁵

¹⁹ Ibid., 73-74.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398에서 재인용.

²⁰ Ibid., 75.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398에서 재인용.

²¹ Ibid., 78.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398에서 재인용.

²² 창세기 49:2-28.

²³ 마태복음 1:1,3,5,6,16.

²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12:50)

²⁵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398-399.

가정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계시의 통로요, 결국 믿음의 가족인 교회로 완성된다. 한 예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결과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빠져나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²⁶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인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준 야곱의 후손들이었다.²⁷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을 거쳐 그의 열 두 아들로 흘러갔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혈연으로 이어진 한 민족이 되었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공동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야곱의 확대된 가족이 혈연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언약공동체가 된 것이다.

가정, 가족, 식구

가정(Family)은 사전적 의미로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가정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는 한자어 중에 ‘가족’ 과 ‘식구’ 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구분 없이 쓰이는 말로 언뜻 그 의미의 차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낱글자를 뜯어보면 ‘가족’ 은 家(집)+族(무리)로 ‘한 집에 속한 무리’ 를 가리키는 말이고, ‘식구’ 는

²⁶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²⁷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더라.”(창세기 46:27)

食(먹다)+口(입)로 ‘함께 밥을 먹는 입(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가족이나 식구나 한 울타리 안에서 의식주 생활을 함께 영위한다는 점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은 꼭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성립되는 관계인 반면에 식구는 그렇지 않다. 비록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하숙생이나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식구가 될 수 있다. 앞에서 Colijn이 말한 히브리 가정의 구성원이 혈연의 가정 이외에 종파 노예와 손님이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구’라는 가정의 개념은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식사는 단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Barry D. Jones는 “식사를 나누는 것을 가장 인간다운 일 중에 하나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은 여기에 영양소를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²⁸고 했다. 즉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김영래는 음식을 먹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동산의 과실을 임의로 먹으라”²⁹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의 섭취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행위이며,

²⁸ Barry D. Jones, "The Dinner Table as a Place of Connecton, Brokesnness, and Blessing," *DTS Magazine*, October 1, 2015, accesses April 22, 2016, <http://www.dts.edu/read/a-place-at-the-table-jones-barry/>.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0에서 재인용.

²⁹ 창세기 2:16.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었다.
그러나 음식의 잘못된 섭취가 야기한 인간의 죄는 다시 음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는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놓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말구유는 말이 사료를 먹는 곳이다. 다시 말해 먹이통에 놓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 잘못된 음식의 섭취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 먹이통인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내어주심으로³¹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즉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음식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이것은 혈연의 관계를 넘어선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그의 몸을 음식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왜 음식인가? Peter J. Leithart는 음식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음식은 의존을 의미한다.”³²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의 연장을 위해 양분을 섭취해야하고, 이것의 공급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음식은 [음식에 대한] 우리의 지배를 알려준다.”³³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매는 임의로

³⁰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1.

³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3-55)

³² Peter J. Leithart, “Theology of Food and Feasting,” *First Things*, August 5, 2004, accessed August 26, 2016, <http://www.firstthings.com/blogs/leithart/2004/08/theology-of-food-and-feasting>.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2에서 재인용.

³³ Ibid.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작하라고 하였다. 셋째, “음식은 친교를 위한 것이다.”³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일 뿐 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이들과 교제와 나눔을 동반하게 된다. 넷째, “음식은 항상 예배의 중심이었다.”³⁵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제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단이라는 식탁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신다. 김영래는 “음식은 우리의 생존, 책임, 나눔, 예배에 이르는 존재의 전 측면에 개입된 육적이면서 영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³⁶라고 했다.

유월절의 구원을 함께 경험한 가족의 식사

김영래는 “가족식탁의 성경-신학적 원형은 유월절 식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⁷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1년 된 숫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신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Pass over)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매년 반복하면서 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³⁸

³⁴ Ibid.

³⁵ Ibid.

³⁶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3.

³⁷ Ibid., 406.

³⁸ 출애굽기 12:3-28.

이 날 식사의 주 메뉴는 어린 양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각 가족의 식구의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신다.³⁹ 왜 어린 양을 가족의 식구 수대로 잡게 하셨을까? 단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면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문 것과 같이 별도의 지역에 그들을 모이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유월절의 기적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기적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셨다. 유월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경험을 가정을 통해 베풀어 주셨다. P. Andrew Sandlin은 유월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한 마리씩 양을 잡았다(출애굽기 12:3) 이제 이 사실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하나님은 집회를 소집하고 여러 마리의 양을 잡지 않으셨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족(가정)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⁴⁰

출애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 전 민족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양을 가족 단위로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정은 구원의 기본적 단위이며 개인 구원을 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즉 가정은 식사 공동체이며 동시에 구원과 언약의 공동체인 것이다.

³⁹ 출애굽기 12:3-4.

⁴⁰ P. Andrew Sandlin, "A Lamb for a Household: A Theology of Family Salvation," Center for Cultural Leadership, April 27, 2014, accessed September 19, 2016, <http://docsandlin.com/2014/04/27/a-lamb-for-a-household-a-theology-of-family-salvation/>.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7에서 재인용.

새로운 언약이 선포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예수님의 공생애 중 한 번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며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⁴¹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혈연적인 가족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가리켜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내내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며 자신의 혈연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식사와 관련된 많은 일을 겪으시지만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제자들과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가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기억하는 사건이었듯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도 구원을 의미했다.⁴²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 하셨다.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라고 하셨다.⁴³ 이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월절 언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약의 선언이었다. 어린양의

⁴¹ 마태복음 12:28-50.

⁴²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8.

⁴³ 마태복음 26:28.

피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새로운 방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⁴⁴고 하셨다. 유월절과 성만찬의 공통점은 가족 공동체가 특별한 식사를 하며 그와 연관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Todd Bardi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유월절은 기억의 식탁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를 지키고 자신을 기억하라고 요청하신 것을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노예생활과 육체적 죽음의 결박에서 히브리사람들을 이끌어 낸 것처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⁴⁵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식사를 매년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었던 성만찬을 반복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유월절 어린양이란 식사를 통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그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혈연적 가정이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제자들을 확장된 형태의 가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라 하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라는 가정을 통해 언약을 공유하며 전수하게 하셨다.

⁴⁴ 고린도전서 11:25.

⁴⁵ Todd Bardin, *The Meals of Jesus: Finding Our Place at God's Missional Table* (Oviedo, FL: EA Books Publishing, 2014), 102.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10에서 재인용.

새로운 언약을 전수하는 초대교회의 식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셨다.⁴⁶ 이것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의 언약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었다.⁴⁷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출발한 초대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Todd Bardin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식탁은 계속되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채택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은 집을 돌아가면 떡을 떼었다. 다시 말해 식사 의무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었다.”⁴⁸ 고 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와 함께 떡을 나누게 된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체험하였고 이는 이들의 구원을 확증함과 동시에 구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⁴⁹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자주 떡을 떼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⁴⁶ 누가복음 22:19, 고린도전서 11:24-25.

⁴⁷ 누가복음 22:20, 고린도전서 11:25.

⁴⁸ Bardin, *The Meals of Jesus*, 102.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11에서 재인용.

⁴⁹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11.

⁵⁰ 사도행전 2:42, 2:46.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앞에서 우리는 식탁을 공유하는 가정 중심의 공동체, 언약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과연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생겨난 용어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교회라는 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가 같으며, 구약을 무시한 신약이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미 구약성경 안에 교회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시각도 있다.⁵¹

그럼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할까? Henry C. Thiessen은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사건 이후라고 주장한다.⁵² Fre F. Kramer는 교회가 열두 사도의 파송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⁵³ 가정교회의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난 ‘교회’라는 용어를 살피고, 그 후에 신약성경 안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살펴보려고 한다.

구약성경의 ‘교회’

구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용어는 ‘카할(קהל)’ 과

⁵¹ E. Brunner는 “에클레시아”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다고 본다. *Dogmatics*, vol. III (Louisville, KY: Westminster Press, 1962), 56. 박승로, *가정교회* (서울: 세복, 2002), 22에서 재인용.

⁵²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645-646. 박승로, *가정교회*, 23에서 재인용

⁵³ Fre F. Kramer, *Jesus the Light of World*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33). 박승로, *가정교회*, 23에서 재인용.

‘에다흐(עדוּת)’가 있다. ‘카할’이란 말의 뜻은 ‘부른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논하기 위해 소집된 공동체’라는 의미이다.⁵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열 가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데 이 모임이 바로 ‘카할’이다.⁵⁵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회중’이라고 번역 되는데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 모였다.

‘카할’과 ‘에다흐’는 70인역의 처음 부분(모세오경)에서는 다같이 ‘공회(συναγωγή/synagoge)’를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나중 부분에 있어서 ‘카할’은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반면에, ‘에다흐’는 ‘쉬나고게’로 번역하여 신약성경에서 다르게 사용하도록 길을 열었다.⁵⁶

‘에다흐’는 처음에는 ‘카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을 의미하였지만 70인역에서 이 말은 더 제한된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 과정을 거쳐 ‘에다흐’는 ‘쉬나고게’로 번역되었고, 신약성경에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집)을 의미하게 되었다.⁵⁷

이와 같이 ‘카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키게 되었고 ‘쉬나고게’는 그들이 모이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약의 ‘카할’이란 용어가 처음부터 종교적인 공동체를 의미를 지는 것은 아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며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⁵⁴ 박승로, *가정교회*, 23.

⁵⁵ 신명기 5:1.

⁵⁶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0. 박승로, *가정교회* (서울: 세복, 2002), 23에서 재인용.

⁵⁷ Ibid.

형성하면서 히브리 용어인 ‘카할’ 이 종교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다.⁵⁸

신약성경의 가정교회

신약성경에는 교회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와 ‘쉬나고게’ 로 이것은 모두 70인역에 유래한다.

‘에클레시아’ 는 히브리어의 ‘카할’ 을 번역한 말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보인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 를 나타낸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할’ 을 번역한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에클레시아’ 가 115회 나오는데, 이 중에 3회는 ‘회중’ 으로 번역되었고 112회는 ‘교회’ 로 번역되었다. 이 ‘에클레시아’ 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요,⁵⁹ 둘째는 도시의 이름과 동일시한 교회요,⁶⁰ 셋째는 가정에 있는 교회이다.⁶¹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가정에 존재하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가정과 회당을 집회의 장소로 사용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교회를 의미했다. 회당에서의 예배가 금지된 후에는 가정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 이러면서 신약시대의 교인들은 개인의

⁵⁸ 부르스 라이스마,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1), 13. 박승로, *가정교회*, 24에서 재인용.

⁵⁹ 마태복음 16:18.

⁶⁰ 행 20:17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참조.

⁶¹ Ron Trudinger, *Cells for life*, 장동수 역, *가정 소그룹모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21-22. 박승로, *가정교회*, 28에서 재인용.

집(가정)에서 그룹별 집회를 가졌다.⁶²

4 복음서에 나타난 가정교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정교회를 설립하셨다는 증거는 없다. 심지어 가정교회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사역을 살펴볼 때 ‘가정’을 중요한 사역의 장으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⁶³ 그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신다.⁶⁴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다.⁶⁵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늘에게 계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의 가족이었다.

4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은 또한 집(가정)을 설교와 치유와 가르침 등 사역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 집에 사람이 가득 찼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때 한 중풍병자를 걱정한 사람들은 그 집의

⁶² 박승로, *가정교회*, 29.

⁶³ 마태복음 10:32, 마태복음 11:27.

⁶⁴ 마태복음 6:9.

⁶⁵ 마태복음 12:46-50.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⁶⁶ 또한 삭개오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온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무시고 그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신다.⁶⁷ 예수님은 회당이나 성전, 야외에서도 가르치셨지만 특히 집(가정)을 가르침의 장소로 사용하셨다.⁶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셨다. 그 때 제자들에게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고 말씀하신다.⁶⁹ 이를 토대로 볼 때 제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집(가정)을 기초로 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4 복음서에서 ‘가정교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많은 사역들이 집(가정)에서 이루어졌다.⁷⁰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정교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⁷¹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⁶⁶ 마가복음 2:1-5.

⁶⁷ 누가복음 19:1-9.

⁶⁸ 마태복음 13:36.

⁶⁹ 마태복음 10:1-12.

⁷⁰ Trudinger, *Cells for life*, 26-27.

⁷¹ 사도행전 1:4.

Gareth Icenogle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다락방의 120인의 입이 열리고 지역의 가정 그룹들이 곳곳에 형성되는데 공헌했다”⁷²라고 말함으로, 다락방이 가정에서의 모임이고 가정교회의 시작임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오순절 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은 시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감과 동시에(행 2:42; 행 4:4; 행 5:14; 행 6:7 참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기도 하고⁷³,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⁷⁴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임은 주로 성전과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Trudinger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에 의한 분파로 여겨졌을 때 회당에서의 모임이 가능하였지만, 그들과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유대교는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로마 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⁷⁵

오순절 이후 등장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는 유대교와 별 구분 없이

⁷² Gareth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원, 김선일 공역 (서울: 옥토, 1997), 309. 박승로, *가정교회*, 31에서 재인용.

⁷³ 사도행전 2:46.

⁷⁴ 사도행전 5:42.

⁷⁵ Trudinger, *Cells for life*, 27. 박승로, *가정교회*, 32에서 재인용.

여겨질 때는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유대교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유대교는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했다. 급기야 초대 교회의 집사였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다(행 7:59). 이와 같은 유대교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핍박은 점점 커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며 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⁷⁶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정교회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 집에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게 된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들은 고넬료의 집(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때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갇히는 위기에 놓이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행 5:4)고 했는데, 여기서 교회란 어떠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⁷⁷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신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 라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는데 그녀는 자신의 집을

⁷⁶ 사도행전 8:2, 사도행전 11:19.

⁷⁷ Trudinger, *Cells for life*, 26. 박승로, *가정교회*, 33에서 재인용.

제공하여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⁸ 또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 바울은 그 간수의 집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개종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어 마지막 작별인사를 한다. 그 때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행 20:20) 전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에는 많은 가정 교회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⁷⁹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면 그 당시 교회들이 오늘과 같은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린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롬 16:23)” 라고 표현하였는데 가이오는 이 도시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고, 그의 가정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⁸⁰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언급한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회당에서 모임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회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롭게 모임 곳을 정해야 했다. 이 때 아마 디도 유스도(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회당에서

⁷⁸ Ibid.

⁷⁹ 박승로, *가정교회*, 34.

⁸⁰ Ibid., 35.

모였던 그대로 계속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가이오의 집은 신앙적 모임을 위한 가정교회였다.

또한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롬 16:3,5)” 라고 이야기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로마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교 신자였고, 49년 클라우디오 황제의 로마 추방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해 있었다. 고린도에서 맨 처음 바울을 만나 바울을 자기 집에 묵으며 일하게 하고 또 그곳을 모임의 장소로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이사를 왔을 때도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했다(행18:26).⁸¹ 브리스가의 아굴라의 집은 신앙적 모임을 위한 가정교회였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밋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몬 1:1-2)”.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시 빌레몬은 골로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네 집에 있는 교회’는 거대한 건물로 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모이는 작은 기독교인의 모임이었다.⁸²

바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골 4:15-16).” 늑바의 집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인의 교회가

⁸¹ John R. W. Stott,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박상훈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192.

⁸² 박승로, *가정교회*, 37.

동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을 갖고 있었다.⁸³

바울은 또한 스테바나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스테바나의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들과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한다.⁸⁴

이와 같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의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자신의 집을 신자들의 모임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들은 가정에서 형성된 교회를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가정교회의 교회사적 이해

가정교회는 기존교회의 대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교회의 형태가 아니다. 구약성경의 근간을 두고 있고 신약성경에도 가정교회들이 등장한다. 그럼 교회사에는 어떠한 가정교회들이 등장했으며 그 흐름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까지

후기 사도 시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신약 시대 이후에 4세기 전까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⁸³ Ibid.

⁸⁴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린도전서 16:15-16)

기존 형태였다. 기독교 신자들은 큰 건물에 모이기보다는 개인의 집에서 그룹별로 모였다. 주후 2세기경 몬타니스트파(Montanist)는 처음에는 가정교회의 형태로 모이다가 이후 건물에서 모여 예배하기도 했다.⁸⁵

수도원 운동(The Monastic Movement)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던 소수의 종교에서 다수의 종교로 변화되었다. 이 때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하고 초대 가정교회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수도원 운동이 주후 4세기부터 일어났다. 12세기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유재산의 소유를 거부하고 설교와 봉사를 통해 사회적 임무를 수행했다. 이와 흐름을 같이 하는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⁸⁶

종교개혁 이전시대

종교개혁 이전에도 가톨릭의 부패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며 가정교회와 같은 형태로 활동했다.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왈도파(Waldensians)나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추종자들로 생긴 롤라드파(Lollards)들은 가정교회의 형태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⁸⁵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77.

⁸⁶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Peabody, MA: Hendrickson, 1998), 52. Ibid., 77에서 재인용.

가졌다.⁸⁷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유지해왔다.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The Period of the Reformation)와 그 이후
마틴 루터의 ‘제3의 예배’

마틴 루터는 1526년에 출판된 『Vorrede zur Deutschen Messe』 (독일 미사와 예배 질서에 대한 그의 서언)에서 세 종류의 예배를 제안한다. 첫째는 라틴어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다. 이 예배는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구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라틴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어로 진행되는 공적인 예배이다. 세 번째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은밀한 예배이다.⁸⁸ 루터는 이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세 번째 예배는 진실로 복음 전도적인 예배여야 한다. 이 예배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드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손과 입으로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해야 하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하고, 다른 기독교 사역을 하기 위해 가정에서 따로 모여야 한다.⁸⁹

루터는 가정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따로 구분했고, 이렇게 소수로 모여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터는 아쉽게도 이와 같은

⁸⁷ 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 in Their Historical Setting*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50-51.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77-78에서 재인용.

⁸⁸ Banks, *The Church Comes Home*, 53-5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78에서 재인용.

⁸⁹ Simson,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121.

가정교회의 구조를 셀과 대 집회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⁹⁰ 마틴 로이드 존스는 루터가 이 가정교회를 실행에 옮기 못한 것은 제세례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⁹¹ 루터는 이 가정교회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로마가톨릭과 같은 대그룹의 예배를 지향했다.⁹²

재세례파(the Anabaptists)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의 견해를 따르는 이들은 유아 때 받은 세례는 무효이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세례가 진짜 세례임을 주장하며 세례를 두 번씩 받았기에 재세례파라 불린다. 이 재세례파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나 교파들이 신학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재세례파는 초대 교회의 생활과 핵심적인 요소들을 회복하려는 열정이 대단했다. 그들은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모여 초대 교회가 했던 예배와 기도, 권면, 헌금과 나눔 등 4시간 정도의 모임을 가지며 궁핍한 사람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⁹³

모라비안 교도(the Moravian)

1722년 보헤미아 형제단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라비아를 떠나 독일 작센에 있는 진젤돌프 백작의 땅에 정착해 헤른후트를 건설했다. 헤른후트는 순식간에 모라비아에서 추방된 사람들과 독일 각지에서 온 경건주의자들로 가득

⁹⁰ Ibid., 122.

⁹¹ Ibid.

⁹² Ibid.

⁹³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79.

왔다. 이들은 루터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작은 규모로 가정에서 모였으며 친밀한 교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모라비안들은 영국, 북아메리카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들은 미국 조지아로 가는 존 웨슬리를 만나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⁹⁴

존 웨슬리의 속회

최상태는 웨슬리의 속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독일의 경건주의와 연결되는 모라비안 형제단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존 웨슬리는 공회 내에 작은 속회(Class)를 조직했다.⁹⁵ 이 속회는 사실상 가정교회였다. 그는 속회에 초대 가정교회가 행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이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은 다양한 이웃을 접하게 되었으면, 매주 한 번씩 주로 밤에 모여 자신의 영적 상태나 특별한 문제, 필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충고나 책망을 하기도 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결국 기도와 감사로 이 모임을 마쳤다.

모라비안 운동에 영향을 받은 웨슬리는 속회라는 작은 모임을 조직한다. 이 속회는 기독교 초기에 등장했던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 모임은 가정교회로서 개별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로써 연합된 큰 조직에 속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그룹 안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다. 웨슬리는 공동체의 구성들에게 속회의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이유는 속회 모임을 진실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이 결국 가정교회가 되었고, 웨슬리의

⁹⁴ David Watson, *Discipleship*, 문동학 역, *제자도* (서울: 두란노서원, 2007), 115-116.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79에서 재인용.

⁹⁵ Ibid., 80에서 재인용.

작은 교회 운동이 영국을 휩쓴 강력한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

웨슬리는 이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회복시켰다. 최상대는 오늘날 감리교회의 속회 모임이 생명력이 약화되는 이유를 웨슬리가 전해준 가정교회의 정신과 역동성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⁹⁶

현대 교회와 가정교회

1950년대 말 남미의 가톨릭교회에서 가정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남미의 빈민가를 중심으로 20만 개 이상의 초대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에서 실시했던 성찬, 예배, 유무상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⁹⁷

1960년 이후로는 서양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정교회 운동이 시작되었고, 러시아에서는 가정과 지하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주의 혁명 이후 집회장소를 가정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의 가정교회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면서 계속 성장했고, 1997년에는 약 25,000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밝혀졌다(북경저널, 1997년 7월 25일 3면).⁹⁸

최근 유럽에서는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탈피하여

⁹⁶ Ibid., 79-80.

⁹⁷ Ibid., 81.

⁹⁸ 김복경, *중국의 한족 선교* (서울: 울산큰빛교회 2001), 65. 최상대,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 82에서 재인용.

공식적이지 않은 만남들을 통해 신앙을 장려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가는 유럽 교회는 이 운동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⁹⁹

전세계제자화선교회(DAWN)에 따르면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형태를 지닌 건물로 보지 않고, 신자들의 모임이라 생각하며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덴마크,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지에 약 2,000여 개가 존재하며, 이것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이 작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미래 교회의 한 축을 이끌 것이라 전망한다.¹⁰⁰

한국에서는 십 수 년 전부터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소그룹목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그 관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과 Touch사역의 국제 대표자인 윌리엄 벡햄과 랄프 네이버 등이 한국을 방문해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상태는 이러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직 한국 교회 소그룹사역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모델 교회가 필요한 시기이다. 너무 많은 소그룹의 형태를 가진 사역들이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초대 교회의 공동체성을 성숙시켜 나가는 데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소그룹 사역을 정리하고 단순화해 신약 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¹⁰¹

한국에는 셀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교회가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형태의 소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⁹⁹ 이병모, “유럽 신세대 새교회운동”, 국민일보, 2001년 1월 8일, 2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82에서 재인용.

¹⁰⁰ Ibid.

¹⁰¹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83.

진정한 소그룹에서 시작한 교회보다는 기존의 제도화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셀 교회의 이론을 적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유야 어찌됐건 소그룹 안에서 가정교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잘 심어줄 수 있다면 침체된 교회들을 회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제 III 장

통(通)성경의 이해

통(通)이란 무엇인가?

‘통성경’이란 무엇일까? 통성경이란 성경을 연구하고 통독하는데 있어서 통통(通)의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통성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통의 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통(通)의 개념

‘통(通)’의 문자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通):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 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히 비치다, 통하게 하다, 걷다, 보급되다, 오가다, 왕래하다, 알리다, 전하다, 통보하다, 정을 나누다, 통(편지나 서류나 악기를 세는 말)¹

이 가운데 통(通)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풀이는 ‘통하다’라는 말인데, ‘通’을 ‘通하다’로 풀이해 놓은 것에 불과 하니, 뜻을 되짚어볼 수 있는 풀이로는 ‘꿰뚫어 두루 미치다’ 정도가 되겠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과 마음 한 구석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마음이 통한다’고 이야기 한다.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계절 등이 일치할 때 우리는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말로

¹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

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감할 수 있다. 반대로 내 생각을 말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잘 통(通)하지 않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즉 통(通)이란 기본적으로 소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통(通)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꿰뚫어 이해하는 것’ 을 가리킨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특징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꿰뚫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가 적절한 경우 “자네 사람 참 잘 봤네” 라고 이야기한다. 어떠한 대상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그 대상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두루 안다는 말과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으로 본다’ 는 말을 조병호는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通達), 관통(貫通)하도록 보는 것이다. 막힘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한 번에 쥐어 잡는 것이다.”²라고 이야기 했다. 통(通)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더욱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³ 하나의 경로나 하나의 방법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동서양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통(通)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서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계약(Covenant)’ 이요, 동양에서는 ‘관계(Relation)’ 라는 것이다. 대체로 서양의 문화적 토대가 ‘계약

² Ibid., 62-63.

³ Ibid., 45.

중심의 횡적 사회’ 라면, 동양은 ‘관계 중심의 종적 사회’ 이다. 서양에서는 자아와 세계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위를 개체, 즉 개인에 두고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공동체에 두고 있다.

리처드 니스벳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하여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는데 미국인과 중국인 대학생에게 판다, 원숭이, 바나나의 사진을 제시하고 판다와 바나나 중 서로 관련 있는 사진을 고르라고 했다. 이 때 동양인의 대부분은 관계를 중요시 보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생각에 기인하여 바나나 사진을 고르지만, 서양인의 대부분은 동물이라는 속성을 보기 때문에 판다를 고른다.⁴

동양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상황적, 맥락적이지만 서양은 개별적이고, 본성적, 논리적인 사고와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조병호는 동서양의 만남의 장으로서 통(通)을 이렇게 설명한다.

‘통 신학’ 은 성경 강해와 성경통독의 통합입니다. 성경 강해는 서양의 특징인 합리와 이성의 측면을 잘 발달시켜 성경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통독은 동양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동양인들의 독서법의 특징은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意自現)’ 이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는 의미입니다. 성경통독은 성경 66권을 계속 읽음으로써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성경이 의미하는 큰 줄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동양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⁵

⁴ 산업능력대학종합연구소, *지적사고의 기술* (서울: 미래의창, 2008), 125. 윤광석, “1년 1독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에 대한 연구-이리어양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30에서 재인용.

⁵ 이동환, “살아 숨 쉬는 성경지식과 현실의 통찰력 ‘성경통독’으로 키웁니다,” *목회와 신학* (2012년 3월), 50.

또한 조병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우리는 지난 120년간 서구 사회의 모범적인 수신자였다. 교회와 신학 뿐만 아니다. 한국 사회의 대부분 영역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서구의 방식은 나누고, 쪼개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걸 매뉴얼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분과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서양은 성경을 지적이고, 인지적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동양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다르다. 심정적으로 접근한다. 그건 매우 큰 차이이다. 동양적 방식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⁶

그동안 우리는 성경연구 방식에서 서양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서양의 연구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면이 없지 않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계약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서양은 동양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동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인 이성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것, 그들이 추구하고 수용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금 서구의 21세기를 미리 생각하고 이끌고 있는 미래학자들 중 상당수가 동양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계약 중심의 서구식 사고만으로는 서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기 때문이다.⁷

동양의 관계 정신과 서양의 계약 정신, 어느 한쪽의 일방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관계와 계약의 정신이 통(通)했을 때, 동양과 서양이 동반자로 섰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고 보다 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동양의 방법과 서양의 방법 중 서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통은 동양과 서양이 각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로부터 장점을 배우고 수용하는 동서양 만남의 장으로서

⁶ 백성호,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5.1., 16.

⁷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49-50.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통(通)의 방법론

조병호는 ‘통(通)’을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 전체로서의 의미를 찾아보는 방법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는 통(通)의 인식방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발견한 가장 창조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차이’와 ‘다름’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는 자기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삼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다소간 충돌이 있기는 하겠지만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시너지(synergy)가 나올 수 있다. 한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라면 다른 한 사람이 가장 진보적일 때 그 안에서 발전적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지,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였을 때 발전적인 동력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생한다.⁹

21세기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보완해가는 가운데 그 둘의 합을 뛰어넘는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존중을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통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의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다. 조병호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⁸ Ibid., 87.

⁹ Ibid., 88.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 비주류 계층에 속해있던 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성, 유색인종, 제3세계,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사회운동과 함께 주류 세력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¹⁰

합리성의 토대 위에 마련된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추구했던 모더니티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절대와 객관성이 부정되고 이것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주류가 해체되는 특징을 지닌다. 중심보다는 개체를 강조하며 이것은 파편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중심을 해체하여 개체가 파편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연결성’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파편화 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통(通)의 방법에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파편화와 이를 연결하는 연결성을 함께 본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체와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현상의 두 가지 얼굴이므로, 부분에만 초점을 기울이다 보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전체와 부분의 간극에서 발전적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반대로 전체만 강조하다 보면, 개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즉 파편화된 현상 그 자체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각각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모든 파편들을 전체로 놓고 각각이 전체 속에서 어떠한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21세기를 위한 사고방식이다.¹¹

전체와 부분은 나누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전체만 강조하게 되면 부분의

¹⁰ Ibid., 129.

¹¹ Ibid., 91-92.

의미가 약해지거나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반대로 부분만을 강조하면 통합된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없고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파편화만 진행될 것이다. 통으로 본다는 것은 부분 부분의 본질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부분들이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연결을 하고 있는 지를 결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의 방법이다.

둘째,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특성을 찾는 것이다.¹² 여기서 분리된 개체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일컫는 파편화된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로의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공통특성을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통(通)은 하나의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수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존재나 사고들을 혼재가 아닌 공존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즉, ‘통(通)’의 인식 방법을 통해, 개체가 지니는 부분의 한계와 산발적인 존재로서의 혼란을 뛰어넘어 극단적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며, 혼란과 무질서를 다양성과 조화로 이끌게 된다. 그러나 공통(共通)이라는 것이 획일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다는 것은 모더니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함으로써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전체를 조화와 균형있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병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더니티적 사고방식에서는 두 극단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영역으로

¹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58.

여기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서는 극단으로 치우친 현상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파편 가운데 하나로 본다. 그러나 명확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비록 어렵다 해도 서로 배타성을 띄고 있는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의 양 극단을 전체적 입장에서 아울러내는 것이 바로 통(通)의 방법론의 구체적 실제 중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을 통해 양 극단을, 혹은 그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산발적으로 흩어진 파편으로만 보면, 개개의 현상들은 산만함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들을 전체적·유기체적 입장에서 아울러내는 통(通)의 방식으로 보면, 이들에게서 연관성, 상보성, 상호 작용성을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든, 혹은 어느 사회 영역이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이 양자는 서로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상황 속에서 각 입장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진영이 통(通)의 생각 안에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더욱 좋은, 최선의 합의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보고, 서로 소통(疏通)하게 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¹³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서는 양 극단의 현상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배타적인 성향을 띠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서는 양 극단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흩어진 파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통(通)의 방식으로 본다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하나의 현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¹⁴ 하나의 현상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각도란 말에는 방향, 혹은 관점이나 방식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꽃이란 사물을 두고 이것을 물리적으로 인식하느냐, 관점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또 이것은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통의 방법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¹³ 조병호, *통이다* 켈츠통, 94-95.

¹⁴ Ibid., 96.

다섯째,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¹⁵ Text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Context를 동반한다. Text와 Context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잘 조명하여 Text의 의미를 해석할 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통(通)의 방법으로 본 성경통독

그럼 통(通)의 방법을 적용한 성경통독이란 무엇일까? 조병호는 그의 성경통독에 대해 다섯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삼국지』나 『태백산맥』 같은 대하소설을 읽을 때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전체를 읽어내려 가는 것처럼 말이다. 원래 ‘통독(通讀)’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하던 방법이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렇게 책 전체를 통(通)으로 여러 차례 읽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직관(直觀: intuition)¹⁶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66권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읽는 성경통독을 한 번, 두 번, 더 나아가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성경에 대한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¹⁷

매일 말씀을 몇 절씩 묵상하는 정도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 읽기가 쉽고 보지 않는 구절은 영영 보지 않게 된다. 이러한 편향적인 성경 읽기를

¹⁵ Ibid., 98.

¹⁶ 직관(直觀: intuition)이란 감각 기관과 그 지각 작용을 통하여,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직접 얻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사유 작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는 작용을 말한다.

¹⁷ Ibid., 163.

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기가 어렵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通)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통(通)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통에는 ‘통달(通達), 관통(貫通)’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즉 막힘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경을 꿰뚫는 통찰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최근에 교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경통독의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는 적다고 한다. 그것은 성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편집순서를 잘 모른 상태에서 읽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모여 있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모여 있고,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모여 있다. 전통적인 성경의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율법서(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가, 신명기
- 역사서(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 시가서(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 예언서(17권): 대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 복음서(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 역사서(1권): 사도행전
- 바울서신(13권): 옥중서신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일반서신 -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공동서신(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 예언서(1권):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독함에 있어서 현재 성경의 편집된 순서를 따라 읽게 되면 역사 순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라는 구약의 성경이 있다. 느헤미야는 역사서 뒤쪽에 있어서 역대기서와 에스라 뒤에 나온다. 그리고 느헤미야 뒤로는 에스더와 시가서 5권과 이사야가 있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나온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획하셨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후 70년의 포로기간이 끝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의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의 성경의 편집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게 되면 느헤미야를 먼저 읽고 시가서를 읽고 한참 후에야 예레미야를 읽게 된다.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먼저 읽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전 사건인 성벽의 파괴 사건을 읽으니 헛갈리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 읽기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역사의 순서대로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읽어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기 위해서는 공시와 통시를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시(共時)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하는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通時)란 연속되는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¹⁸ 시간의 가로축인 공시적 관점과 시간의 세로축인 통시적 관점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공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통시적 흐름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어렵고, 통시적 관점에서만 보면 공시적 넓이를 따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표1> 공시와 통시의 이해¹⁹

	공시 →	
통 시 ↓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스바냐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예를 들어 예레미야를 본다면 그 이전의 사역자인 이사야와 그 이후의 사역자인 느헤미야를 통시적으로 봐야 하고, 그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하박국, 나훔, 스바냐를 공시적으로 보아야 올바른 성경 읽기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독해가다 보면 세계를 경영하시며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이 훨씬 더 쉽고 질서 정연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에 따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이다.²⁰ 그렇다면

¹⁸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9.

¹⁹ Ibid., 55.

²⁰ Ibid., 26.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순서로 읽어야 할까? 역사 순으로 본 구약통독의 순서는 이렇다.²¹

창세기부터 룻기까지는 전통적인 성경분류의 방법대로 읽어도 무방하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사무엘의 사역이 기록된 1-8장을 먼저 읽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 9-31장을 읽는다. 이 때 다윗이 지은 시편 34, 52, 54, 56, 57, 142편을 함께 읽는다. 그리고 이때 역대상 1-10장의 이야기도 동시대의 역사로 함께 읽으면 좋다.

다음 사무엘하 전체와 역대상 11-29장, 열왕기상 1-2장까지를 묶어서 보자. 이 부분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활동하며 공과 정의로 정치했던 이야기들이다. 이 때 다윗이 지은 시편 3, 7, 18, 61, 63편을 함께 읽고, 또 시간으로 볼 때 맞물리지 않는 남은 시편들도 뒤이어 읽는다.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3-10장, 역대하 1-9장에 그 전반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시편 72, 127편, 그리고 잠언, 아가서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인 열왕기상 11장은 전도서와 함께 읽는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분열왕국으로 나뉘게 된다. 그 중에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역대하 10-25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니느웨에서는 요나가 사역을 했다.

이어서 열왕기하 15-20장, 역대하 26-32장을 볼 때는 이사야와 미가를 함께

²¹ Ibid., 70-75.

읽어야 한다. 그러면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과 이사야에 있는 내용 중에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왕하 18:13-20:19; 사 36:1-39:8).

다음은 열왕기하 21-23장, 역대하 33-35장을 읽으면서 스바냐, 나훔, 하박국을 읽고, 기록된 시대가 불분명하지만 함께 읽어도 큰 무리가 없는 요엘서를 함께 묶어서 본다. 그 다음은 열왕기하 24-25장, 역대하 36장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오바댜, 예레미야애기를 동시에 본다. 여기서도 열왕기하 24-25장과 예레미야의 내용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겹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왕하 25장; 렘 39장, 52장).

그 다음 다니엘과 에스겔을 함께 볼 수 있어야한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 궁에서 머물고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왔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은 서로 공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에스라 1-4장을 읽고, 학개 스가랴서를 읽고, 에스라 5-6장을 읽고, 에스더서를 읽으면 좋다. 에스라 1-4장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보내며 성전을 재건하게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을 촉구하고 격려한다. 에스라 5-6장에는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귀환(B.C. 537년)과 제2차 포로귀환(B.C. 458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유다민족의 멸절될 위기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난 후 에스라 7-10장, 시편 119편을 함께 묶어서 보면 좋다. 그리고 제3차 포로귀환(B.C. 445년)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읽고 마지막으로 말리기서를 읽으면 된다. 역사 순으로 본 구약통독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²²

<표2> 역사 순으로 본 구약통독의 순서

구약 성경통독 순서	
원역사, 족장사, 모세와 출애굽 시대	창→출→레→민→신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수→삿→룻
왕정 시대	삼상→대상 1-10장→삼하/대상 11-29장→왕상1-2장→시편→왕상 3-10장/대하 1-9장→잠→아→왕상 11장→전→읍→왕상 12-22장/왕하 1-14장/대하 10-25장→암→호→욘→왕하 15-20장/대하 26-32장→사→미→왕하 21-23장/대하 33-35장→슌→합→나→욘→왕하 24-25장/대하 36장→렘→애→읍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겔→단→스 1-4장→학→슌→스 5-6장→에→스 7-10장→느→말

다음으로 신약 성경통독의 순서로 가보자. 신약성경이 담고 있는 기간은 약 100년 정도로 그 기간이 구약에 비해서 짧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구약보다 쉽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과 어린 시절 등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해도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3년 사역과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마찬가지이다.

²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19.

따라서 사복음서를 통독할 때는 굳이 시간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²³

우리가 신약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는다고 할 때 주의할 부분은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의 관계이다.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보고 서신서들을 사건의 순서에 맞게 끼워 맞춰 읽는 것이다.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열두 제자들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8장 22절까지는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를 읽는다. 그 다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 18장 23-19장을 읽은 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후서를 읽는다. 사도행전 20장 1-3절은 로마서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28장까지 읽는다. 이 부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 그곳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간 이야기,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여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로마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연금 상태로 지내던 바울은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 그리고 잠시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다. 그러나 A.D. 64년에 로마에 대 화재사건이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 죄수들을 다시 소환하게 되었고, 이 때 죽음을 예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다.

이어지는 공동서신은 시간 순서에 구애 받지 않고 차례로 읽어간다.

²³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69.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서신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신약성경 전체를 역사 순으로 읽게 된다. 역사 순으로 본 신약통독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역사 순으로 본 신약통독의 순서²⁴

신약 성경통독의 순서	
예수님의 사역	마→막→눅→요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행 1-12장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행 13장-18:22→살전→살후→갈→행 18:23-19장→고전→고후→행 20:1-3→롬→행 20:4-28장→엡→골→빌→몬→딤펴→딤후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히→약→벧전→벧후→유→요일→요이→요삼→계

이와 같이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통성경의 성경읽기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사건들을 쉽게 이해하고 그 내용이 파편화되지 않게 통(通)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단, 나아가 책을 읽지만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야 한다. 성경통독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펼칠 때 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²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4.

된다.²⁵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을 읽는 것이 단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경영이 보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통독의 목적

우리가 성경통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 조병호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다. 성경통독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읽는 것이다. 그는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후, 창세기 6장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창 6:6).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한탄과 근심의 무게를 한 자락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⁶

²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7.

²⁶ Ibid., 39.

이 부분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 기뻐하셨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날려 보냈던 까마귀나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비가 내렸던 4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 사건을 전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성경이 말하는 넓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얽매어 성경을 오해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성경통독의 목적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둘째, 복음 확장과 신앙계승을 목적으로 한다.²⁷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으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²⁸ 이 약속은 약 500년이 흐른 뒤에 애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다.²⁹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다.³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전체로 읽지 않는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후손에 대한 언약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별개의 사건이 되고 만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함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²⁷ Ibid.

²⁸ 창세기 15:5-7.

²⁹ 출애굽기 1:7.

³⁰ 여호수아 21:43-44.

성취되고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은 단지 혈통을 따라 기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교육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어진 교육에 의해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태어난 모세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³¹” 이라는 말을 알아들었고, 동시대 히브리인들도 그 말을 알아들었다.³²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고, 또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만나세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³³” 고 당부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계승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계승이라는 통로가 있었다. 신앙을 계승되었고, 그 계승된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³⁴ 성경통독의 목적은 복음의 확장과 신앙계승에 있다.

셋째, 성경통독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 실천이다.³⁵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 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³¹ 출애굽기 3:6.

³² 출애굽기 3:15.

³³ 신명기 6:7.

³⁴ Ibid., 40.

³⁵ Ibid.

선지자들의 말씀을 집약하신 거라고 하신다.³⁶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셨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위로와 온 인류의 기쁨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³⁷ 또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시며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과 ‘이웃 사랑’ 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통독의 목적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과 ‘이웃 사랑’ 을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성경 학습방법

그럼 ‘통성경’ 을 활용한 성경 학습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을까? ‘통성경’ 을 활용한 성경 학습방법이 등장하게 된 과정과 전체의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통성경의 역사와 그 성과

조병호는 1989년부터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하는 노력을 수행해왔다.³⁸ 먼저 성경통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³⁶ 마태복음 22:34-40.

³⁷ 요한복음 6:38.

³⁸ 조병호,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2012년 3월호), 135.

청장년,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숲과나무 성경통독 캠프’ 를 진행하고 있고, 2000년 3월에는 성경통독과 QT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경통독 방식의 목상지 『큐티 성경통독』 (현: 마음과 생각)을 발간했다. 그 뿐 아니라 2001년 5월 CTS기독교TV-밀레니엄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TV방송 최초로 ‘성경통독’ 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³⁹

또한 그는 성경통독 학문화를 위해 전문 도서들을 출간했다. 2004년 9월 성경 전체를 ‘통(通)’ 의 관점으로 『성경통독』 을 출간하여 2005년 ‘기독교출판문화상’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성경의 배경사를 다룬 『성경과 5대제국』, 『성경과 고대정치』, 『성경과 고대전쟁』 을 출간하고, 그 중 『성경과 5대제국』 으로 그해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 청소년, 평신도, 리더, 소그룹 모임 등 각 분야와 대상을 고려한 30여 종의 성경통독 교재를 출간하여 성경을 연구,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⁴⁰

성경통독의 학문화는 대학 교과목으로 이어져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에서 성경통독 교과목을 강의하기도 했고, 2009년부터는 성경통독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성경통독 렉처러 코스’ (Bible Tondok Lecturer Course)를 개설하여 2012년까지 약 140여 명의 성경통독 전문 강사를 양성했고, 2018년 2월 현재 33기 ‘성경통독 렉처러 코스’ 를 진행하고 있다.⁴¹

그의 성경통독 세계화의 노력으로는 2003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³⁹ Ibid.

⁴⁰ Ibid., 136.

⁴¹ Ibid.

뷔르템베르크 주교청 선교대회(Annual Mission Festival Evangelical-Lutheran Church in Wuerttemberg 주제: ‘성서와 세계교회’)를 시작으로 독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한국에서 시작된 ‘성경통독’을 소개하였고, 2007년에는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주제: 21세기는 통통이다!)를 개최하였다. 그때 미국 드루대학교 교수인 레너스 스위트 박사(Dr. Leonard Sweet)는 성경통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⁴²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바로 이 ‘통독’을 통해서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병호 박사님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Now as we come alive to the Living Word we gotta come alive to it in this Tongdok fashion. And my whole reading of the Bible has changed because of this Tong method of reading the Scriptures. Dr. Aoh is the one who has helped me to understand how to bring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for me to come alive to the Living Word.

조병호는 그 외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열린 ‘독일 비텐베르크 2017 CONGRESS’에 아시아 대표로 초청받아 성경통독을 세계에 알리며 성경통독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한 공식을 정리하여 ‘통통 성경 포뮬라(Formula for TongBible)’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의 26여 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이 공식 안에 녹여낸 것이다. 그는 2015년 ‘통성경 포뮬라’와 그동안 양성해 온 성경통독 전문 강사들을 기반으로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를 개설하여 2018년 2월

⁴² Ibid., 137.

현재, 전국 20여 개의 센터에서 6기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통성경학교’의 비전은 5세에서 20세까지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자녀들이 20세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CBS 기독교TV와 손을 잡고 온라인 강의인 ‘CBS바이블칼리지’를 열어 성경통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통성경 학습방법의 실제

통(通)성경은 성경에 나타난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절기와 명절로는 안식일,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약 1,500곳에 이른다.

성경에서의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곳이고, 나아갈 방향이 제시된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 참으로 많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삶의 방향으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정탐 10명을 비롯해 여로보암, 예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 등이 있다. 또한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크게 나뉜다.

이처럼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통으로 함께 보아야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지 통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이다.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통으로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붓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통성경이다.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1)이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제사장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보는 것이 통통성경이다.

7트랙(Track)

이렇게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통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통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나라를 통통으로 보았을 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또한 7개의 다른 분위기가 나타난다. 조병호는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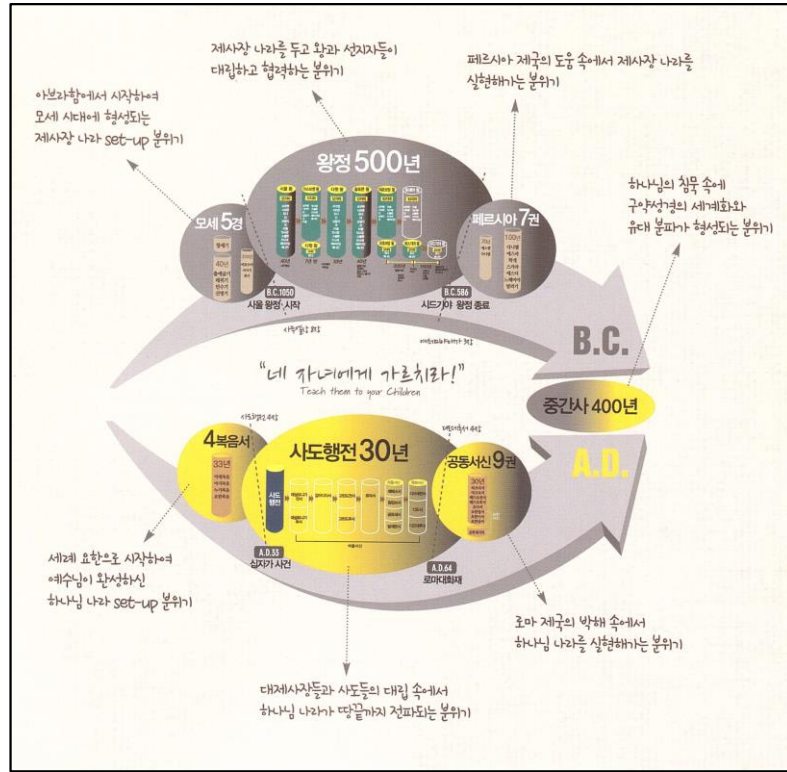
7개의 트랙(Track)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7개의 트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트랙1: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 모세5경 (창, 출, 레, 민, 신)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 ▶ 트랙2: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 왕정 500년 (역사서와 예언서)
- ▶ 트랙3: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 페르시아 7권 (단, 학, 슥, 스, 예, 느, 말)
- ▶ 트랙4: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 ⇒ 중간사 400년
- ▶ 트랙5: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 ⇒ 4복음서 (마, 막, 눅, 요)
- ▶ 트랙6: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 ▶ 트랙7: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 공동서신 9권 (히, 약, 벧전, 벧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⁴³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⁴³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47.

<표4> 7Tacks의 큰 그림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세워 가시는 제사장 나라(출 19:5-6)의 이야기이고,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렘 31:31)을 약속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눅16:16)를 선포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다. 제사장 나라를 5대 제국을 통해 경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으신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3개의 트랙으로, 하나님 나라를 3개의 트랙으로 나누고, 그 사이 친구약 중간사를 1개의 트랙으로 하여 각기 다른 7개의 트랙 분위기로 나눌 수 있다.

7스텝(STEP)

이렇게 만들어진 7개의 트랙은 7개의 단계(Step)으로 공부할 수 있다. 7개의 단계란 PRE-STEP1, PRE-STEP2,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로 총 7단계이다. PRE-STEP1은 ‘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 휘장이 찢어진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PRE-STEP2는 ‘성경과 영성’으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STEP1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성경에 나타난 서로 다른 7개의 분위기(Track)을 그 분위기를 관통하는 7개의 질문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7개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단계이다. STEP2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20개로 나누어 살펴보는 단계이다. STEP3는 ‘성경 즐기기’로 성경을 의미와 역사 순으로 전체 40개의 과로 나누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로 살펴보는 것이다. 각 과에는 6-7개의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가 있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다. STEP4는 ‘성경을 통통한 기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샘플 12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생활이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왔다. STEP5는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로 성경에 나타난 5대 제국의 이야기를 통해 불신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7개의 스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PRE-STEP1: 그 순간(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
- ▶ PRE-STEP2: 성경과 영성(성경을 통통한 영성 이야기)
- ▶ STEP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7개 질문 중심의 나라 이야기)
- ▶ STEP2: 하나님의 마음(66권 경전을 통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 ▶ STEP3: 성경 즐기기(40개의 성경 즐기기 이야기)

- ▶ STEP4: 성경을 통통한 기도(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 ▶ STEP5: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전도 이야기)

STEP2 ‘하나님의 마음’ 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표5> 20개의 하나님의 마음

7Tracks	20개의 마음	주요 내용
Track 1 모세오경	1. 하나님의 마음	창조 때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의 아픈 하나님 마음
	2. 열방을 향한 꿈	홍수 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
	3. 만나세대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의 마음에 담는 60만 만나세대
	4. 신앙계승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기쁨’ 과 ‘끊어지는 슬픔’
Track 2 왕정 500년	5. 천년모범	다윗 마음의 꿈이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모범 예루살렘 성전 건축
	6. 마음과 지혜	솔로몬의 모든 지혜, 부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시작됨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200년간 고멜 같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 절망 앞에선 희망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이 새 언약, 마음언약 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희망선언
Track 3 페르시아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

⁴⁴ Ibid., 73.

7권	10. 재건공동체	만나세대에 이어 ‘재건공동체’의 찬양소리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Track 4 신구약중간 사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rack 5 4복음서	12. 기쁨을 위한 탄생	양 틈에서 자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까지 ‘영광의 기쁨’을 알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13. 한 영혼 사랑	상한 갈대 같은 거라사 광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사로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위해 땀과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마음
	14. 용서를 향한 열정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을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Track 6 사도행전 30년	16.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가 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모든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름다운 결정’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준비된 면류관을 꿈꾸는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와 마가가 믿고 따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Track 7 공동서신 9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0.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

STEP3 ‘성경 줄기’ 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표6> 40개의 성경 이야기 줄기

구약 성경통독 순서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창 1~11장
원역사와 족장시대	2과 족장사	창세기 12~36장
	3과 입애굽과 민족	창세기 3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 1~18장
모세와 출애굽시대①	5과 세계 선교의 꿈	출애굽기 19~40장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
3마당: 만나세대	7과 만나세대	민수기
모세와 출애굽시대②	8과 만나학교 졸업	신명기
4마당: 신앙계승	9과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시대와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기
사사시대	시기	룻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5마당: 천년모범	12과 미스바 세대	사무엘상 1~7장
왕정시대①	13과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 8~31장
통일왕국시대1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하, 열왕기상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왕정시대②		잠언, 아가, 전도서,
통일왕국시대2		욥기, 시편

⁴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0-24.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왕정시대③ 분열왕국시대	16과 남북분열 왕조 17과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왕정시대④ 남유다 퇴락기	18과 남유다 멸망 19과 잠간의 징계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바벨론 포로시대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에스겔 다니엘
10마당: 재건 공동체 페르시아시대	22과 성전 재건 23과 성벽 재건 24과 고백과 침묵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신약 성경통독 순서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5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제국과 중간사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의 사역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3마당: 한 영혼 사랑 예수님의 사역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의 사역	30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12장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13~15:35 사도행전15:36~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18:23~19장, 고린도전·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사도행전20~26장, 로마서 사도행전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공동서신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20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통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전체를 조명해볼 수 있는 ‘그 순간’ 으로부터 성경 전체를 의미적 역사 순대로 나눈 7개의 분위기를 익히고, 다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20개로 익히고, 다음 40개의 이야기 줄기를 알고, 다음 기도와 전도를 공부하는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이 부분부분 나뉘어지는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되지 않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One Story)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체의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어느 부분적인 면에 치우쳐 편협한 성경읽기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단원이 짧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 해주기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IV 장

가정교회에서의 통성경 실행 과정: 남일교회

통성경의 적용

프로젝트는 필자가 섬기고 있는 남일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남일교회는 충남 금산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로 성도의 대부분이 타지에 살고 있어서 주중 모임이 어렵다. 해서 각 가정이 가정교회로, 주일 오전 예배는 가정교회들이 모이는 제도적 교회로 크게 Two-Track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역사 순으로 편집된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활용하여 성경통독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새벽기도회를 나올 수 없는 성도는 가정에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였다. 주일 오전예배는 제도적 교회의 개념으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모임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의 개념으로 한 주 동안에 읽었던 성경 범위에 대해 서로의 느낌을 나누고, 『통성경학교』 교재를 활용하여 30주에 걸쳐 통성경 강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1년 1독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많은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년에 성경을 1독하는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이에 도전을 하지만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설명을 했지만 현재 성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역사 순으로 편찬 돼있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또한 성도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생활을 다짐한다. 교회가 새벽기도회와 함께 성경통독을 진행한다면 성경 읽기의 도전을 쉽게 진행할 것이고, 또한 기도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 때 통성경 강의를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1년에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된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일년일독 통독성경』이 없는 성도들은 『일년일독 성경읽기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루에 읽어야 할 분량(약 3-4장)을 목사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독을 실시했다. 1년 1독 성경통독 새벽기도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사도신경(1분):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새벽기도회를 시작한다.
- . 찬송 부르기(5분): 오늘 읽을 성경 내용과 관련된 찬송가를 선택하여 부른다.
- . 통성기도(5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통성기도를 한다.
- . 내용설명(3-5분): 통독성경 본문 아래쪽에 있는 『통독본문 내용정리』부분을 보고 설교식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 . 성경통독(10-15분): 목사와 성도가 교독으로 성경을 통독한다(3-4장).
- . 통성기도(3분): 읽은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고, 주어진 본문의 깨달음을 따라 기도제목을 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
- . 인도자의 마침 기도와 축도로 기도회를 마친다(전체 약 25-30분 소요).
- . 『일년일독 통독성경 읽기표』는 부록에 첨가하였다.

주일 오후 통성경 강의

주일 오전예배는 제도적 교회의 개념으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모임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의 개념으로 통성경 강의를 실시하였다. 교재는 통성경 이론을 적용한 『통성경학교』를 주교재로 선정하였고, 각 Track의

내용을 정리한 소책자 7권과 『통성경 길라잡이』와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부교재로 활용하였다. 강의는 30주 과정으로 통성경 학습과정의 7STEPS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였다. 강의의 시작은 한 주간의 성경 분량을 읽은 느낌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강의와 과제를 병행하였다. 강의는 『통성경학교』의 내용을 강의하였고, 과제는 『통성경학교』 교재의 빈 칸 채우기와 소책자를 읽고 정리하게 함으로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강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였다.

STEP3은 ‘성경줄기’ 부분으로 성경을 가장 자세히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STEP에서는 성경을 40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출판된 『통성경 길라잡이』를 부교재로 활용하여 미리 교재를 읽어보고 2줄로 정리는 과제를 주어 강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였다. 또한 매주일 성경읽기 분량을 정해 성경을 읽으며 정리하게 하였다. 성경 강의와 함께 성경을 읽게 함으로 성경의 이해도를 높인 것이다. 30주간의 강의 진행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주차: 왜 5세인가?(from infancy)-3가지 큰 그림

1주차의 큰 제목은 ‘왜 5세인가?’ 이다. 이것은 성경공부의 시작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통성경에서 5세부터 성경공부의 적기로 보고 있다. 보통 5세는 아직 문자를 익히기에는 이른 나이이지만 타인과의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이이다. 아직 문자를 알지 못하지만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5세부터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아직 인문, 사회과학을 접하지 아는 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그 예로 디모데와 사두개파를 비교한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6)

여기의 ‘어려서부터’ 라는 말은 영어로 ‘From infancy’ 로 번역된다.

‘infancy’ 는 유아기라는 뜻으로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 시기를 가리킨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훌륭한 성경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로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까지 동행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구약 39권의

이야기를 담아낸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를 땅끝까지 퍼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최고 권력의 종교지도자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29-30)

유대의 최고 종교 정치적 지도자급인 사두개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고로 성경을 오해했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두개파 특징은

‘모세5경’ 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그들은 헬라제국의 유대교 핍박시기에는 그

빛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도세력이 된다. 그들은 결국 A.D. 70년 맛사다 항쟁 때 로마에 의해 성전의

붕괴와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즉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성경을 오해했던 사두개파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250여 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 둘의 비교를 통해 성경공부의 시작시기가 5세가 적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유아기의 특징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은 그 내용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시기에 오히려 성경의 큰 그림인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 과 같은 큰 그림을 갖게 해줄 적기로 보는 것이다.

그럼 5세 때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20세에 실제로 성경을 소유한 인물이 있을까?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렘 1:6-7)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약 20세였다.

하나님께서 약 20세인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전하신다. 그리고 유대인들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신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본문의 내용이다.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20세까지의 시간동안 성경을 잘 배워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들어 깨달을 수 있었다.

반면에 하나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말에 반대하여 2년 만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과 성전의 기명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달콤한 말로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그 해 일곱째 달에 죽고 만다(렘 28:17).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된다.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5세부터 성경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1주차 강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성경을 전달함에 있어서 적당한 그릇을 선택해야함과 요절이 아닌 이야기로 전달해야한다는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 각 주차의 강의 시간: 약 1시간
- 과제: 소책자 『그 순간』 읽고 독후감 쓰기
『통성경학교』 2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일년일독 통독성경』 1일-12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표7> 성경 읽고 정리하기 과제 예시

<p>제001일 범위: <u>창세기 1-2장</u></p> <p>제목: <u>천지창조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u></p> <p>내용: <u>창세기 1-2장에는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기록하게 한다.</p>

2주차: ‘그 순간’ 이야기

2주차 ‘그 순간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럼 성전의 휘장은 왜 찢어졌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왜 ‘다 이루셨다’ 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3,500년 전 모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상자에 태워져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다. 40살에 살인사건에 연류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가 바로와 9번에 걸친 협상을 벌이지만 결국 그 협상은 결렬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적을 뛰어넘는 마지막 기적인 유월절 기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지켜야할 법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담게 하시는데 그 후부터는
 이 언약궤를 열어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볼 수 없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둘 공간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 성막은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와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로 나뉘게 되고, 그 가운데는 휘장이 드리워지게
 된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이게 되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만 출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놓여진 지성소에서 인간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출 25:22). 모세 때 만들어진
 언약궤는 레위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시대를 맞게 된다. 다윗은 해달의 가족으로 지어진 성막을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언약궤를 넣고 싶은 마음을 먹는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 가지 조건으로 성전건축을
 허락하신다. 첫째로 다윗은 준비만 할 것이고, 둘째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시공을

하고, 셋째로 설계도대로 짓는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퍼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왕상 8:4-43)

예수님께서서는 후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라고 말씀하신다. 솔로몬이 말한 ‘이방인’ 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 은 동일한 의미로 ‘모든 민족’ 을 가리킨다. 여기서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난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세워져서 다른 민족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민족이든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 즉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¹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성취되고 구체화 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1,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어린양과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대 속죄를 이루신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 순간은

¹ 창세기 12:2-3.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담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순간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만 이루어졌는데 그 순간 이후부터는 임재의 장소가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고전 3:16)이라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된다.

- 과제: 소책자 『성경과 영성』 읽고 독후감 쓰기(예습)
- 『일년일독 통독성경』 13일-24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 『통성경학교』 교제 3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3주차: 성경과 영성

3주차의 강의는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다. 성경은 크게 5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우리는 성경의 분량이 많다는 선입견 때문에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보려고 하고 중요한 요절들을 중심으로 보려는 노력들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성경은 상당히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문자로 읽고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롬 10:17)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 성경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믿음 성장하게 된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 간접,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양의 분석적, 동양적

직관적 해석을 통(通)으로 살펴서 성경을 정경적으로 또한 심정적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예수님의 탄생이야기로 가보면 예수님 개인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이야기가 들어있고, 임산부인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성경은 이와 같이 개인·가정·나라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통(通)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우주와 소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계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을 계시해놓으신 성경을 알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6:29)라고 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성은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순종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영성은 체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사 베드로는 죽음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지 빛나는 자리에서만 영광이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 과제: 소책자 『7가지 질문』 읽고 독후감 쓰기(예습)
- 『일년일독 통독성경』 25일-36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 『통성경학교』 교재 4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4주차: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트랙 1: 모세5경의 질문)

1-3주차까지는 통성경의 7STEP중 첫 번째 PRE-STEP이 끝나고 4-6주차까지의 STEP1으로 들어간다. STEP1은 통성경의 큰 그림인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7개의 분위기(7 Tracks)로 나눈 부분을 각 Track을 관통하는 7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단계이다. 질문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고, 궁금증을 해결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성경과의 좋은 관계가 열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성경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성경을 관통하는 좋은 질문이어야 하며,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질문이어야 한다. 성경의 큰 그림을 잘 그리면 그 안에 수 만 개의 작은 그림은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 첫 번째 트랙1은 모세5경으로 이를 관통하는 질문은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했는가?” 라는 질문이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 네 명(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민족을 이끈 중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왕의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효과와 능력을 믿기에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37일-48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재 5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5주차: 7Questions I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의 질문들)

트랙2(왕정 500년)에 해당하는 질문은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다. 왕은 당시 최대의 권력자로서 왕에게 잘못 보이면 힘들어질 것이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왕과 대립을 했을까? 그 이유는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사무엘 시대 이후 왕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왕들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맞게 통치할 때는 왕들과 협력을 하고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이들과 대립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단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취한 문제에 대해 대립하였고, 엘리야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문제 때문에 대립하였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등거리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대립하였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드기야와 대립하였다.

트랙3(페르시아 7권)에 해당하는 질문은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현재 자신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나 이들은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유는 징계, 교육,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바벨론 제국의 수명 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의 길로 가기를 바라셨지만,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설득하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이들은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 힘든 70년의 포로생활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제사장 나라의 꿈을 키워온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 고레스 왕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내린다(스 1:1-2). 이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 제사장은 힘을 합해 성전을 재건하고,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당했던 어려움을 목숨을 걸고 구해내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에스라는 재건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이다.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교육을 통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 네 명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트랙4(중간사 400년)에 해당하는 질문은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이다.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한다.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기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안에는 약 400년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 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 제국을 넘어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이 등장하고 세리와 창기들이 등장한다. 과연 중간사 400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구약시대 마지막 존재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새롭게 알렉산더가 등장하여 삼시간에 헬라 제국을 세운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사후에 크게 3개의 헬라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과 마케도냐 헬라 제국이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은 처음 이집트 헬라 제국 하에 있었는데 이 때 이집트 헬라 제국은 유대교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이집트 헬라 제국 하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은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되는 좋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가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자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이집트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유대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때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패배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헬라화 정책을 잘 따르는데 유독 유대인들만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헬라화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헬라 제국은 할례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놓는 등 유대교를 핍박하였다.

그러나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다. 마카비 혁명을 하스몬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돼서 시리아의

핍박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혁명군 3,000명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정규군 46,000명과 기병 7,000기를 전멸시키며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켰다. 유대인들은 그 날을 기념으로 하여 수전절이란 명절을 지켰다. 하스몬 왕조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제사장이 왕이 되면서 대제사장이 왕을 겸하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띠게 된다. 사독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직과 왕을 겸하게 된 하스몬 왕조의 왕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종교 귀족들이 모임 그룹으로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종교적으로는 시리아 헬라 제국에 저항을 같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취하지 않는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 왕까지 겸하는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다. 종교적 귀족 계급이었던 사두개파와 경제적 중산층인 바리새파는 공존하다가 크게 한 판 붙는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하스몬 왕조의 왕 겸 대제사장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신부가 바로 자신의 형수였던 것이다. 왕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대제사장이 과부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에 그 결혼식에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던지며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모욕했다. 결혼식 후 화가 난 야나이우스는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 이 때부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고, 이 모습을 본 8,000명의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성전을 등지고 사해 사막 동굴로 떠나버렸다.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이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49일-60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6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6주차: 7Questions II(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의 질문들)

트랙5(4복음서)에 해당하는 질문은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 23:13,15,27)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그렇게 욕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역겨운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 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까지 했다. 이러한 세리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더 친구로 여기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랙6(사도행전 30년)에 해당하는 질문은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 대제사장 세력들은 더 이상 예수의 잔당들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리로 나와 때로는 3천 명씩, 5천 명씩 회심하게 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 이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제자들을 잡아오기까지에 이른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며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속죄의 장소가 바뀌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대제사장이 가진 4대 원한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한다.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주장하는 야고보와 스테반을 죽이고, 회심하여 ‘예수를 주’ 라고 증거하는 바울을 30년 동안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트랙7(공동서신 9권)에 해당하는 질문은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지켜주었던 바울을 죽였는가?” 이다. 사도 바울은 1,2,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만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붙잡히는 위험을 당하게 되고,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그 무리로부터 피신을 시켰다. 천부장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심문하는 하는 중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힌다.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로마의 주 병력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한다. 바울은 거기서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여 로마로 이송되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A.D. 64년 로마 대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사형을 당하는 중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러한 7개의 질문들은 성경에 나타난 7개의 트랙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면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어도 그 부분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61일-72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7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소책자 『마음 훈련』을 읽고 정리하기(예습)

7주차: 하나님의 마음 1-5과

(하나님의 마음, 열망을 향한 꿈, 만나세대, 신앙계승, 천년모범)

7-9주차는 STEP2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20개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범위는 창세기이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쁘셔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몇 장만 넘어가도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며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세상을 심판한 홍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한탄하시는 마음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망을 향한 꿈’의 범위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노역에서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노역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출

6:9)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적과 마지막 열 번째 유월절의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제시하신다. 이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며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제국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만나세대’의 범위는 민수기와 신명기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열심히 학습하고 몸으로 체험한다.

‘신앙계승’의 범위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350년간 어둠 속에 살아간 시대를 ‘사사 시대’라 한다. 그러한 가운데 한 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묵묵하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라합의 아들 보아스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을 지켜가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다.

‘천년 모범’의 범위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2장이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다윗은 평안을 누리던 시절에 문득 ‘해달의 가죽 아래 있는

언약궤를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집 안에 모셔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윗의 길’ 을 천년의 모범이 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당신의 기쁘신 마음을 표현하신다.

- 과제 : 『일년일독 통독성경』 73일-84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8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8주차: 하나님의 마음 6-11과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8주차는 하나님의 마음 6-11과로 ‘마음과 지혜’ 로부터 시작된다. ‘마음과 지혜’ 의 범위는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까지 이다.

‘마음과 지혜’ 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셨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나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방 여인들에게 향해 있었다. 솔로몬은 노년에 뼈아픈 반성을 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 권면한다.

이어지는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의 범위는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미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만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내려간다면 혹시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에게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북이스라엘의 단과 벳엘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며 호세아를 통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신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통 받는 모습을 예언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신다.

‘절망 앞에 선 희망’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고 범위는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일에 해당한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계속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다시 돌아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셨지만 남유다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된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며 그들이 전부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음을 자기의 소망이 된다고 노래한다.

‘징계 희망의 디딤돌’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하는 내용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한 헬라와 로마로 제국이 변동되는 환상을 본 다니엘의 이야기이다. 범위는 에스겔과 다니엘이다.

‘재건 공동체’는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의 범위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이다.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 제사장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을 재건한다. 재건 공동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는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이다. 구약의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85일-96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9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9주차: 하나님의 마음 12-20과

(기쁨을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양 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기쁨의 소식을 알리신다(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거라사 광인과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사로의 영혼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한 영혼을 위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신다(한 영혼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실 정도로 용서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용서를 향한 열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신다(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가 된 제자들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열리는 제자 시대). 복음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과 땅 끝을 향하여 뻗어나갔지만(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믿음의 디모테를 비롯한 복음 2세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다(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기독교는 A.D. 64년을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한다(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예수님의 제자 중 마지막까지 살았던 요한은 밧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유배지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97일-108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10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소책자 『이야기 즐기기』를 읽고 정리하기(예습)

10주차-24주차: STEP3. ‘성경 즐기기’

10주차-24주차까지는 STEP3. ‘성경 즐기기’ 부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역사 순으로 정리하여 40개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40개의 각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이야기 제목 6-7개가 존재한다. STEP3에서는 부교재로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는데, 『통성경 길라잡이』를 읽고 중요한 이야기 제목마다 2줄씩 내용을 정리하는 과제를 병행하였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8> 『통성경 길라잡이』를 읽고 정리하기 과제의 예시

<원역사(창 1-11장)>

1. 천지 창조(창 1장)

은 우주 만물의 창조이야기.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심.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심. 7일째는 안식하라 하셨다.

2.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창 2-3장)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인간들이 범죄하기 시작함.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은혜로 용서하신다.

3. 가인과 아벨(창 4-5장)

아담의 자식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

4. 노아홍수-하나님의 눈물(창 6-9장)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셨던 만물을 물로 심판하신다. 40주야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것을
쓸어버리시면서 그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5. 족보-약속의 성취(창 10장)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다.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창세기 10장의 내용이다.

6. 바벨탑 사건(창 11장)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흠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인간들을 어쩔 수
없이 흠으셨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준비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
※ 『통성경 길라잡이』를 읽으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10주차-24주차까지의 강의와 과제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10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1-4과로 원역사, 족장사,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09일-120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1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5-8과로 세계선교의 꿈-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대, 만나학교 졸업이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21일-132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2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9-11과로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사례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33일-144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3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12-14과로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하나님의 종 다윗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45일-156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4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15-17과로 솔로몬과 시가서, 남북분열 왕조,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57일-168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5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18-19과로 남유다의 멸망, 잠간의 징계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69일-180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6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20-21과로 포로민 설득, 제국 변동의 밑그림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81일-192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7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22-24과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193일-204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8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25-26과로 헬라제국과 중간사 로마제국과 중간사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05일-216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19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27과 예수님의 탄생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17일-228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20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28과 공생애 3년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29일-240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21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29-30과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승리-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41일-252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22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31과 열리는 제자시대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53일-264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23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32-38과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65일-276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24주차는 통성경 길라잡이 39-40과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최후 승리의 노래에 해당하며 과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277일-288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게 하였고 소책자 『성경을 통한 기도』를 읽고 정리하게 하였다.

25주차-27주차: STEP4. ‘성경을 통한 기도’

25주차-27주차까지는 STEP4로 ‘성경을 통한 기도’ 부분이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성경적 기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25주차는 ‘성경 기도 이야기 I’로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289일-300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26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26주차는 ‘성경 기도 이야기Ⅱ’로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301일-312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27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27주차는 ‘성경 기도 이야기Ⅲ’로 예수님의 기도1, 예수님의 기도2, 예수님의 기도3, 시므온의 기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313일-324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28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소책자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을 읽고 정리하기(예습)

28주차-30주차: STEP5.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28주차-30주차까지는 마지막 STEP5로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부분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5대 제국 이야기를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야기 전도를 설명한다.

28주차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으로 전도를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인 노벨상의 경우에 유대인들은 세계인구의 0.2%의 적은 수에 불구하고도 전체 수상자의 22%를 차지한다. ‘그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소개한다. 이 둘은 바로 모세와 다윗으로 ‘모세의 나라 세우기’, ‘다윗의 민족 통일하기’를 설명한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325일-336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29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29주차는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 로 사마리아인의 시작, 유대인의 시작,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작,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의 대립과 협력, 기독교 유대인의 역사를 5대 제국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본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337일-348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통성경학교』 교제 30주차 분량 성경말씀 빈 칸 채워오기(예습)

30주차는 ‘예루살렘 성전과 5대 제국’ 으로 제단의 역사와 성전의 역사를 5대 제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로 풀어본다.

- 과제: 『일년일독 통독성경』 349일-365일 분량을 읽고 정리하기

이렇게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활용한 성경통독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였고, 30주간의 통성경 학습과정을 통하여 강의와 성경 읽기를 병행하였다.

상담

상담은 ‘통성경 학습과정’에 참여한 참여자 중 4명을 선발하여 진행했다. 상담 대상자는 40대 중반의 남성, 30대 초반의 여성, 30대 후반의 여성, 60대 초반의 남성이다. 상담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금산, 대전지역이며, 상담 방식은 문항이 적힌 설문지를 미리 주고 서술식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상담 진행시기는 2018년 1월 14일에서 24일 이었다.

상담 사례 1.(박○○, 44세, 남성, 기혼, 회사원)

주일 오후모임에 통성경 강의를 시작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성경을

공부한 이후에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단지 의무감에서 읽는 경우가 많았고 솔직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통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읽기는 목회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몇 번 성경 통독을 시도해보았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서 번번이 실패하기 일수였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보자’ 하는 각오로 성경통독에 성공했습니다. 성경통독에 성공하고 나니 뭔가 이뤄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통성경을 공부하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성경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었고, 단지 ‘구절에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에 초점을 맞추며 읽었다면, 현재는 성경을 이해하며 읽으니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즐거워졌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도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저의 기도는 단지 제가 원하는 바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라든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기도’ 를 공부하고 나서 그동안 저의 기도가 잘못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나 개인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부터 저의 기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뜻에 저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생활 뿐 만 아니라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이전에는 속회를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속회의 모임에서도 다각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에 진급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사춘기를 맞아서 대화도 많이 줄어들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는 사춘기를 맞으면서 여러 번 공과에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고, 주일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일 예배 참석이라든지 십일조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럴수록 아들은 저의 충고가 귀찮은 듯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와 아이와의 간격은 더욱 멀어졌고 대화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통성경을 공부하여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해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했고, 아들은 성경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예배 참석이나 십일조와 같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보다 신앙의 본질인 성경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가정이 화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에게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전도하고 싶습니다.

상담 사례 2. (정○○, 32세, 여성, 미혼, 회사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이다.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는 내

일상이 되었고 예배 참석이나 기도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대학생 때부터 QT를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은 술도 먹고 마음대로 살지만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교회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통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통성경에서 첫 시간에 목사님은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를 알고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QT를 했었던 나는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나였지만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고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인지 알 수가 없었다. 성경의 순서에 느헤미야가 먼저 있으니 당연히 느헤미야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은 어긋났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후대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역사 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나는 여러 번 성경통독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나의 성경 읽기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기 일수였다. 그러다보니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잘 아는 구절이나 내 맘에 와 닿는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배경 전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단지 현재 나의 상태에 비추어 그 구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본래 성경을 기록한 의미보다는 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온 것 같다. 목사님께서 ‘성경의 파편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나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다. 성경을 늘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그것들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성경을 읽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통성경을 통해서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의 성경의 이해는 놀랍게 좋아졌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몇 개인지도 어떤 순서인지도 몰랐었는데 7개의 질문을 배우고 나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성경 읽기는 나의 직장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는 현재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전 새로 발령을 받아오신 부장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 부장님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되어 오신 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인지 그동안 회사에서 하지 않았던 많은 업무를 시켰다. 국내외 주식 시장의 동향과 외환 상황과 국제 유가까지 종합한 표를 야근을 해가며 만들어야 했다. 또한 우리 부서 회의에서 나오는 좋은 안건들은 마치 자기가 다 기획한 듯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 내 탓인 양 떠넘기기 일수였다. 너무 과도한 업무와 부장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보니 스트레스성 탈모가 오고 7-8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 둘까 생각했었다. 그러한 과도한 직장의 스트레스 속에서 성경 읽기는 나에게 해방구가 돼주었다. 성경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올바르게 이끄시기 위해서 수많은 제국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이야기를 보다보니 지금 나의 상황은 그리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의 흥망을 목도하고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뀐 후에도 왕이 총애하는 총리의 자리에 까지 올랐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감당치 못할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부장님만 보면 쿵쾅거리던 심장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지금 현재 나의 직장생활은 전과 다름없다. 그러나 성경 한 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안을 주고 마음에 당당함을 준다. 전에는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뭘 하고 먹고 살아야하나?’ 하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하다’ 는 생각이 든다. 통성경은 나에게 찾아온 큰 선물이자 기쁨이다. 내가 느낀 참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상담 사례3. (이○○, 39세, 여성, 기혼, 주부)

저는 39세의 남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성경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오후모임에 통성경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모든 강의가 저를 위한 강의처럼 느껴져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30주의 강의 시간 동안 과제도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제를 꼼꼼히 할수록 성경에 대한 실력이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0주 강의를 마쳤을 때, 성경 한 권을 한 번 가져봤다는 그 성취감은 온몸이 찌릿할 정도였습니다.

통성경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니...

목사님은 그 예로 ‘노아의 홍수’ 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당신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죄로 만연하여서 그 기뻐하셨던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던 것은 빗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의 기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은 결혼도 조금 늦었고 아이도 조금 늦었기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하셨을 때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로 인한 괴로움은 출산의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잠을 안 잔다고 칭얼거리고, 밥을 안 먹겠다고 칭얼거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왕정 이야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길로 돌아서라고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저주와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국이라는 막대를 드셔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야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यो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 11:7-9)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 3:33)

그들이 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렸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혹시 잘못을 하더라도 혼을 낼지언정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왜 5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이야기로 들어 알게 된 것을 예로 들면서 왜 5세 때 아이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이의 성경 교육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디모데와 같이 키워보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대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는 있는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과 같이 어찌 보면 어렵고 큰 그림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서 글씨를 깨우칠 나이가 된다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다”는 통성경의 구호가 단지 구호로 멈추지 않고 내 아이의 이야기로, 내 가정의 이야기로, 내 나라의 이야기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통성경을 통해 제 아이를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이 디모테와 같은 인물로 키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담 사례4. (박○○, 62세, 남성, 기혼, 회사원)

저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집안에 살다가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집사를 거쳐 권사로 임직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제 집사람은 여선교회에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며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학원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무일을 맡아서 담당하다보니 세금을 납부할 때만 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정도를 넘어서 제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몸이 어지럽고 한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도 좋지만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겠기에 대전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즈음에 교회에서도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자녀들 뒷바라지에 제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아내는 교회에서 하던 봉사를 좀 줄이고 집안일에 매진해야겠다고 담당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전도사님은 가정일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업무를 아내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직장의 일로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하는데 교회 일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교회를 옮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전을 떠나 금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금산으로 이사를 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가 금산군 남일면에 있는 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마을 가운데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도 몇 명 되지 않았고 했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교회에 몇 차례 더 출석을 하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다니는 작은 교회라 참 신기한 점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참신한 점은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든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10-15명 정도의 교인들이 한 상에 둘러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넓은 식당에 줄을 서서 식사를 타와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밥을 먹고 교구별로 당번을 정해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가족과 같이 둘러 앉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정리를 하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직접 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교회의 큰 행사를 기획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가는 회사의 보스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후 모임에서는 한 주간 통독한 말씀을 삶에 적용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교인들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기도한 모습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수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한 자매는 공부하면서 느꼈던 많은 어려움 이야기하며 울음을 터트렸고, 안산으로 취업이 되었다가 한 달 만에 실업자가 된 형제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삶의 터전이 달라 평소에는 자주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이지만 주일마다 만나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귀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러운 증세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찾은 마음의 평안함이 스트레스로 인해 들리지 않던 귀를 낮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측의 일방적인 봉사 요구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저의 집사님은 현재 남일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여 성도들의 점심식사를 책임지며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터전이 아직 대전에 있는지라 매일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가정예배서’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침마다 성경통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며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곧 이어 통성경 강의를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성경 통독과 교회에서 통성경 강의를 병행하니 성경의 이해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전에는 평면적으로 보이던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전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성경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성경을 많이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성경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성경에 숨겨진 보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구절이 여기 숨어있었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내가 읽고 싶은 구절들만 읽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구절들은 뛰어 넘고 나에게 익숙한 구절,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들만 반복해서 읽어왔던 것입니다. 통성경은 저에게 새로운 성경 이해의 눈을 열어준 귀한 선물입니다. 이 통성경을 통해 우리교회는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도간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킬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된 교회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담의 분석과 효과

이제까지 네 명의 성도들의 상담내용을 살펴보았다. 네 명의 상담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통성경이 가정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경이 잘 이해되고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됨

통성경을 접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성경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성경이 장르 순으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경을 읽다보니 시간의 순서가 얽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성경을 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 자연히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가 지루했다.

그러나 통성경은 시간의 공시와 통시를 맞추어 역사 순으로 편집 되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성경을 접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경 읽기가 즐거워졌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통성경의 효과는 성경을 2독, 3독을 도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은 해결하기 힘든 하나의 과업과 같다. 몇 년을 도전해도 하기 힘들었던 성경통독을 통성경을 통해 성공한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 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았다. 처음 한 번이 어려울 뿐이지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성경통독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깨달은 성도들은 2독, 3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경의 이해를 통해 주일 설교를 더 이해하게 됨

성경의 이해는 자연적으로 주일 목회자의 설교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성도들은 설교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예배시간이 지겹지 않고 즐겁게 즐길 수 있었다. 성경의 이해는 성도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불러올 뿐 만 아니라 주일 예배의 참석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성경을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하게 됨

성도들이 통성경의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전체와 부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성경은 서양의 분석적이고 계약적인 면과 동양의 직관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면을 결합시킨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준다.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전체의 맥락을 놓치기 쉽고, 전체적인 면을 강조하다보면 부분의 소중함을 놓치기 쉽다. 통성경은 성경의 큰 그림 아래 작은 그림을 두고 서로 연결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성경을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통성경을 접한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지식들이 한 줄로 꿰어지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부분 부분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통성경이란 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소그룹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높아짐

대전에서 큰 교회를 다니던 필자의 교회로 이명해온 권사님의 경우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의 형식적인 교제와 상하구조로 이루어진 목회자와 관계에 싫증을 느끼던 상태였다.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가정교회의 친밀도를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그 분위기 속에 녹아 들었다. 제도적 교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목회자로 인한 상처를 가정교회를 통해 회복한 것이다. 또한 통성경을 경험한 소그룹은 더욱 친밀도가 높아졌다. 필자의 교회는 가정과 같은 소그룹의 교회이나 어린 아이로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공통적인 부분이 부족해 나눔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통성경을 한 이후에는 성경을 공통분모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나눔이 풍성해졌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인 언약 공동체로서 특징을 강화함으로써 인해 소그룹의 친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속회의 참여율과 주일 예배 참석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 삶의 변화가 시작됨

우리는 보통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할 때 ‘철들었다’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통성경은 성경을 심정적으로 읽음으로서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한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통한 변화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기를 통한 변화는 내적인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잔소리로는 자녀의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자발적인 깨달음을 통해 일어난 행동의 변화는 그 변화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이 있다.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을 통해 내리는 결단은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과 ‘이웃 사랑’ 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며 실천적인 삶의 부분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리적인 구원을 강조하며 성경을 좁게 봄으로서 삶의 실천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통성경은 교리적인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구절을 조직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파편화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보려는 노력을 통해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지 않는 성경 읽기를 가능하게 해주고, 성경을 보다 넓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함으로서 결국 삶의 실천의 부분까지 이르게 한다.

가족 관계의 회복과 신앙계승을 가능하게 해줌

한 성도의 경우에는 자녀가 사춘기를 맞으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지속됐었다. 주일 예배 참석이나 십일조를 조언했던 신앙의 교육은 오히려 부모의 잔소리로 여겨졌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그러던 중 통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자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설교나 잔소리가 아닌 이야기의 전달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불러왔고, 이것은 자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통성경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단지 예배 참석이나 십일조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의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콘텐츠를 이루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또 한 성도의 경우에는 6살짜리 아들을 두었는데 통성경에서 배운 그대로를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야기 전달 방법을 통해 글자를 아직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성경을 건네 줄 수 있었고, 나중에 아이가 자란 후에는 함께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통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줌으로서 가족 관계에 도움을 주고 신앙의 형식을 계승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콘텐츠를 이루는 성경의 내용 자체를 계승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상을 불신자나 이웃으로 바꾼다면 복음의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 외의 효과들

필자의 교회의 한 성도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고, 큰 교회에서 봉사의 강요로 상처 받았던 한 성도는 가정교회의 친밀한 교제와 권위적이지 않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자진해서 식당 봉사를 시작한 성도도 있었다. 또 한 성도는 ‘성경을 통한 기도’의 강의를 통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 졌다고 고백했다. 그동안의 기도생활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뢰며 관철시키는 기도를 했다면 ‘성경을 통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성경적이고 깊은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어떤 성도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 제국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전체적인 평가

설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통성경을 통해 성도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었고, 이것은 지속적인 성경통독으로 이어졌다. 또한 성경의 이해는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주일 예배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통성경의 큰 장점은 성경을 전체와 부분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성경을 공통분모로 가지게 된 성도들은 소그룹에서의 나눔이 풍성해졌고 이것은 속회의 참여율과 주일 예배 참석율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목적을 둔 통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심정적으로 읽게 하였고 이것은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 까지 이어졌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가정에서 시도했던 성도들은 가족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신앙의 계승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외에도 통성경은 복음의 확산과 인간관계의 개선, 봉사와 기도 등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I장에서 필자는 한국교회의 쇠퇴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보다는 원래의 모습인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 성경에 우리의 현실을 비추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야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 정보화는 가족 간의 소통의 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가족 간의 끈끈함을 메마르게 한다. 이것은 교회 안의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가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의 이해 방법으로 ‘통성경’을 제시하였고, ‘가정교회’를 제시하였다. ‘통성경’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임을 고려할 때에 그 적용대상을 ‘가정교회’로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을 통해 가정이 소통되고, 신앙이 전수되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이 강화되고, 이것은 전체 교회의 강화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II장 가정교회의 이해에서는 가정교회의 정의와 가정교회의 성서적 이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경 속에 나타난 가정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초대교회 때 생성된 가정교회가 기나긴 교회사를 거쳐

오면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Ⅲ장 통성경의 이해에서는 통의 개념과 통의 방법, 통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어떠한 성경 읽기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경을 전체와 부분으로 반복하여 볼 때 전체를 꿰뚫는 직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의 시간을 공시와 통시로 보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성경 읽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함을 살펴보았다.

Ⅳ장 통성경의 적용에서는 통의 방법으로 구성된 ‘7Tracks’를 ‘7STEPS’의 과정을 통해 실제 교회에 적용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일년 일독 통독성경』을 활용하여 ‘1년 1독 새벽기도회’를 진행했고, 주일 오후모임 시간을 ‘통성경 강의’로 30주간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실시한 이후에 대상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가정교회는 혈연과 개인적 관계를 뛰어넘어 언약을 공유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가정교회의 건강함을 통해 주일 대그룹의 모임도 탄탄해졌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심리적인 회복과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났으며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계승과 복음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연구의 결론

지금까지 ‘통성경’을 통한 성경 읽기와 그것이 적용된 ‘가정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실 성경통독이 개인 신앙과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통독을 교회에 적용한다고 할 때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새벽기도회에 적용해보기를 제안한다. 새벽기도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매일 제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결단을 요구한다. 그 훌륭한 기도회에 성경통독을 결합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일으킬 것이다.

새벽기도회에 성경통독을 제안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기도와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다. 순간순간 주시는 기도의 영성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의 영성도 또한 중요하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하며 서로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1년 1독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영성’이 균형을 이룬다면 건강한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소그룹을 ‘가정교회’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요즘 많이 시행되는 ‘셀 교회’나 ‘목장교회’는 모두 그러한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다. 마치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그 수를 늘려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하면서 ‘셀’이나 ‘목장’이라는 단어보다 ‘가정’이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도울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최초의 ‘가정’을 이루시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은 이 가정을 통해 실현된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400년 후엔 이스라엘이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들은 유월절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경험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언약을 어린 양을 잡아먹는 식사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가정의 식탁’이란 그릇에 담으신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은 가족의 관계를 혈연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품으신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다.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 언약의 선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식사 공동체인 가정의 그릇에 담으셨다.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대부분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식사를 함께 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공유했던 것이다. 교회사에서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며 큰 공동체를 이루기 전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가리켰다. 필자가 ‘가정’이란 단어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가정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정교회’와 같이 친밀하고 언약을 공유하는 강력한 소그룹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연합하는 대그룹의 교회 또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가정교회’가 언약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통성경’ 또는 ‘통성경 강의’를 제안한다. 이것을 가정교회에서 적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대그룹의 형태로 적용해도 좋겠다. 필자의 교회에서는 주일 대그룹 예배 모임을 갖고, 주일 오후에는 가정교회로 ‘통성경 강의’를 실시했다. 대그룹

예배가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통성경 강의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다. ‘설교’가 목회자의 신앙과 경험이 농축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통성경 강의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중세의 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회중들은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포된 말씀’만 들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패하였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도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포된 말씀인 설교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삶이 변화하지만 성경통독은 자신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은 예배와 삶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봤을 때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곧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통성경’ 운동을 통해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고, 교회와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균형을 이루며,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부록 I . 365일 일년일독 성경읽기표

트랙 1 모세5경		
일정	범위	제 목
1일	창1~2	천지창조-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2일	창3~5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3일	창6~9	노아 홍수-하나님의 눈물
4일	창10~11	생육하고 번성하여 흠어지는 민족
5일	창12~14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6일	창15~17	아브람의 기다림
7일	창18~21	복의 통로 아브라함
8일	창22~24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9일	창25~27	이삭의 양보하는 삶
10일	창28~30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11일	창31~33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12일	창34~36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13일	창37~38	요셉의 고난과 꿈
14일	창39~41	총리 요셉
15일	창42~44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16일	창45~47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17일	창48~50	야곱의 유언과 죽음
18일	출1~2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19일	출3~4	하나님의 모세 설득
20일	출5~7	모세와 바로의 협상시작
21일	출8~10	모세의 설득과 하나님의 기적
22일	출11~13	유월절을 기념하라
23일	출14~15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24일	출16~18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25일	출19~20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26일	출21~23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
27일	출24~27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28일	출28~29	제사장 직분의 위임
29일	출30~31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30일	출32~34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
31일	출35~38	풍성한 자원과 헌신
32일	출39~40	성막의 완성과 봉헌
33일	레1~5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사 절차
34일	레6~7	제사의 규례
35일	레8~10	새로운 리더십
36일	레11~13	건강을 위한 배려
37일	레14~15	생명을 위한 배려
38일	레16~17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39일	레18~20	거룩한 사랑

40일	레21~22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41일	레23~25	아름다운 절기문화
42일	레26~27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43일	민1~2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 편성-약속의 성취
44일	민3~4	구별된 레위 지파 계수
45일	민5~6	구별과 헌신
46일	민7~8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
47일	민9~10:10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48일	민10:11~12	시내 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군
49일	민13~14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세대의 선택
50일	민15~17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51일	민18~19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52일	민20~21	가나안에 갈 수 없게 된 모세
53일	민22~25	하나님 군대의 명성
54일	민26~27	두 번째 인구조사-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55일	민28~30	거룩한 절기와 제사
56일	민31~32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57일	민33~36	이스라엘의 여정과 도피성
58일	신1~2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1
59일	신3~4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2
60일	신5~6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

61일	신7~9	명령과 순종
62일	신10~11	하나님의 요구
63일	신12~14	다시 들려주는 율법
64일	신15~17	절기와 송사
65일	신18~21	약속의 땅을 위한 규제
66일	신22~26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67일	신27~28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68일	신29~30	언약의 갱신
69일	신31~32	역사와 미래
70일	신33~34, 시90	모세의 축복과 죽음
71일	수1~2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72일	수3~5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73일	수6~8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74일	수9~12	이스라엘의 승전 기록
75일	수13~17	합당한 분배와 특권
76일	수18~19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77일	수20~22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78일	수23~24	여호수아의 유언
79일	삿1~2:10	남겨진 과제
80일	삿2:11~5	이스라엘의 사사들
81일	삿6~7	기드온과 3백 용사

82일	삿8~9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83일	삿10~12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84일	삿13~16	나실인 삼손
85일	삿17~18	기초가 무너진 사회
86일	삿19~21	원칙 없는 문제 해결
87일	룻1~4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88일	삼상1~3	준비되는 사무엘
트랙 2 왕정 500년		
89일	삼상4~7	사무엘의 말씀개혁운동
90일	삼상8~10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91일	삼상11~12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
92일	삼상13~14	사울의 블레셋 전투
93일	삼상15~16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94일	삼상17~18	다윗의 골리앗 전투승리와 요나단과의 우정
95일	삼상19, 59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96일	삼상20~21, 시34	기도로 여는 하늘문
97일	삼상22, 시52	사울의 공안정치
98일	삼상23~24, 시57	임명권자 하나님
99일	삼상25~26, 시54	하나님의 테스트
100일	삼상27~31	망명지에 들려온 조국의 슬픈 소식
101일	삼하1~2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102일	삼하3~5:5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왕조 수립
103일	삼하5:6~6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104일	삼하7~10	종이 된 다윗 왕
105일	삼하11~12, 시51	우슬초 정결
106일	삼하13~14	압살롬의 암논 살해
107일	삼하15, 시3	압살롬의 반역
108일	삼하16~17	다윗의 도피
109일	삼하18~20	다윗의 복귀
110일	삼하21~22	다윗의 노래
111일	삼하23~24	다윗의 삶의 자취
112일	왕상1~2	다윗의 유언
113일	왕상3~4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114일	왕상5~7	성전 건축
115일	왕상8	성전 낙성식
116일	왕상9~10	솔로몬의 모든 영화
117일	잠1~5	지혜란 무엇인가?
118일	잠6~9	지혜의 원리
119일	잠10~15	의인의 삶, 악인의 삶
120일	잠16~20	지혜를 구하라
121일	잠21~24	마음과 지혜
122일	잠25~29	악한 길을 피하라

123일	잠30~31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124일	아1~4	사랑이란 무엇인가?
125일	아5~8	진실한 사랑
126일	왕상11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127일	전1~3	인생의 뒤편길에서의 고백
128일	전4~7	유한인생 무한지혜
129일	전8~12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130일	욥1~3	욥의 고난과 탄식
131일	욥4~7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132일	욥8~10	욥과 빌닷의 첫 번째 논쟁
133일	욥11~14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134일	욥15~17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
135일	욥18~19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136일	욥20~21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137일	욥22~24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138일	욥25~31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
139일	욥32~37	엘리후의 발언
140일	욥38~42	하나님의 대답
141일	시1~2, 4~9	시와 찬미
142일	시10~18	시와 찬미
143일	시19~27	시와 찬미

144일	시28~33	시와 찬미
145일	시35~41	시와 찬미
146일	시42~50, 53	시와 찬미
147일	시55~56, 58, 60~66	시와 찬미
148일	시67~72	시와 찬미
149일	시73~78	시와 찬미
150일	시79~85	시와 찬미
151일	시86~89	시와 찬미
152일	시91~102	시와 찬미
153일	시103~106	시와 찬미
154일	시107~118	시와 찬미
155일	시119	시와 찬미
156일	시120~134	시와 찬미
157일	시135~142	시와 찬미
158일	시143~150	시와 찬미
159일	왕상12~14	남북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160일	왕상15~16:20	분쟁하는 남북왕국
161일	왕상16:21~17	오므리 왕조
162일	왕상18~19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163일	왕상20~22	오므리 왕조의 죄악과 아합의 최후
164일	왕하1~2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165일	왕하3~5	엘리사가 베포 기적의 배경
166일	왕하6~8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167일	왕하9~10	예후의 치적과 엘리사
168일	왕하11~14	요아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
169일	암1~5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170일	암6~9	정의를 강물 같이
171일	호1~4	호세아의 고멜 사랑 비유
172일	호5~9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173일	호10~14	여호와께 돌아오라
174일	욘1~4	열방을 향한 사랑
175일	왕하15~16	북왕국의 쇠락
176일	왕하17~18:12	히스기야의 개혁
177일	사1~3	이사야의 소명
178일	사4~7	그루터기 비유
179일	사8~12	구원에 대한 약속
180일	사13~17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181일	사18~20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182일	사21~24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183일	사25~29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184일	사30~35	의로 통치하는 왕
185일	왕하18:13~37, 사36	남유다를 위협하는 앗수르

186일	왕하19, 사37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187일	왕하20, 사38~39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188일	사40~42	하나님의 위로
189일	사43~45	이스라엘의 회복
190일	사46~50	이스라엘의 구원
191일	사51~55	고난 받는 중
192일	사56~59	참된 회개
193일	사60~63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194일	사64~66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
195일	미1~3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196일	미4~7	영광이 회복될 시온 산성
197일	왕하21~23	왕정 총결산
198일	슌1~3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199일	합1~3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00일	나1~3	열방을 향한 공의
201일	욘1~3	마음을 찢으라
202일	왕하24, 렘1~3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203일	렘4~6	패역한 남유다
204일	렘7~9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205일	렘10~13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206일	렘14~16	마음을 돌이키라

207일	렘17~20	남유다의 죄
208일	렘21~23	예레미야의 설득
209일	렘24~25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210일	렘26~28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211일	렘29~31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설득
212일	렘32~33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213일	렘34~36	포위 중 항복을 위한 설득
214일	렘37~38	예레미야의 수난
215일	왕하25, 렘39~41	예루살렘 멸망
216일	렘42~45	남겨진 남유다 백성의 행동
217일	렘46~48	열방에 대한 심판
218일	렘49~50	세계를 향한 심판
219일	렘51~52	하나님의 심판
220일	애1~2	무너지는 예루살렘
221일	애3~5	소망-주의 인자와 긍휼
222일	읍1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
223일	대상1~3	다윗의 계보
224일	대상4~5	이스라엘의 족보들 1
225일	대상6~9	이스라엘의 족보들 2
226일	대상10~12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
227일	대상13~16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228일	대상17~20	다윗의 기도와 승전기록
229일	대상21~22	다윗의 죄악과 회개
230일	대상23~26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
231일	대상27~29	다윗의 내각과 성전 건축 준비
232일	대하1~4	솔로몬의 성전 건축
233일	대하5~7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234일	대하8~9	솔로몬의 업적
235일	대하10~13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236일	대하14~17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237일	대하18~22	여호사밧의 시대
238일	대하23~25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
239일	대하26~28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240일	대하29~31	히스기야의 개혁정치
241일	대하32~33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낫세의 죄악
242일	대하34~36	요시야 시대와 남유다 멸망
트랙 3 페르시아 7권		
243일	겔1~3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244일	겔4~7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245일	겔8~11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246일	겔12~14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247일	겔15~17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248일	겔18~20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249일	겔21~22	심판받는 이스라엘
250일	겔23~24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251일	겔25~28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252일	겔29~32	애굽에 대한 심판
253일	겔33~35	예루살렘의 함락
254일	겔36~37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255일	겔38~39	침략자 곁에 대한 심판과 멸망
256일	겔40~41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257일	겔42~43	하나님의 본뜻
258일	겔44~46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259일	겔47~48	회복과 새로운 땅
260일	단1~2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261일	단3~4	꺾이지 않는 신앙
262일	단5~6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263일	단7~9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264일	단10~12	장래의 일들
265일	스1~2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재건세대
266일	스3~4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267일	학1~2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268일	속1~6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269일	슥7~10	예루살렘의 회복
270일	슥11~14	이스라엘의 구원
271일	스5~6	성전 재건의 기쁨
272일	에1~5	유다 민족의 위기
273일	에6~10	위대한 구원
274일	스7~8	에스라의 결심
275일	스9~10	개혁을 위하여
276일	느1~3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목표
277일	느4~7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278일	느8~10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279일	느11~13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280일	말1~4	천오백 년의 사랑의 아쉬움
트랙 5 4복음서		
281일	마1~4	약속의 결정체, 예수
282일	마5~7	산상수훈
283일	마8~10	예수의 이적과 열두 제자 선택
284일	마11~13	하늘 비밀을 담은 일곱 가지 천국비유
285일	마14~16	예수의 갈릴리 사역
286일	마17~20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287일	마21~23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의 설득
288일	마24~25	종말에 관한 설교

289일	마26~28	용서를 향한 예수의 열정
290일	막1~3	열두 제자 선택
291일	막4~6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1
292일	막7~8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2
293일	막9~10	변화산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294일	막11~13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결
295일	막14~16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역
296일	눅1~2	세례 요한 탄생
297일	눅3~4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
298일	눅5~6	훈련과 동행
299일	눅7~8	예수의 치유와 가르침
300일	눅9~10	약한 자의 이웃
301일	눅11~13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
302일	눅14~16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303일	눅17~18	예수의 치유과 교훈
304일	눅19~20	약자를 위한 배려
305일	눅21~22	최후의 만찬
306일	눅23~24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7일	요1~3	들러리의 기쁨
308일	요4~6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309일	요7~8	죄인을 감싸주시는 예수

310일	요9~11	선한 목자이신 예수
311일	요12~13	새 계명을 주심
312일	요14~15	예수의 고별설교
313일	요16~17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
314일	요18~19	예수의 십자가 사역
315일	요20~21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트랙 6 사도행전 30년		
316일	행1~2	증인이 된 제자들
317일	행3~5	세워지는 초기교회
318일	행6~9	그리스도인 핍박과 열방을 향한 홀어짐
319일	행10~12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320일	행13~15:35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321일	행15:36~18:22	2차 전도여행
322일	살전1~5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323일	살후1~3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324일	갈1~3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325일	갈4~6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326일	행18:23~19	3차 전도여행
327일	고전1~4	십자가의 도
328일	고전5~8	교회를 위한 권면
329일	고전9~11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당부

330일	고전12~14	성령이 주신 은사
331일	고전15~16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보
332일	고후1~4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333일	고후5~9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334일	고후10~13	바울의 참된 자랑
335일	행20:1~6, 롬1~3	복음에 빛진 자
336일	롬4~7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337일	롬8~11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38일	롬12~14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339일	롬15~16	땅 끝 비전과 믿음직한 섬김
340일	행20:7~23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341일	행24~26	가이사랴에서의 2년
342일	행27~28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
344일	엡4~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345일	빌1~4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
346일	골1~4	우주의 권자 예수 그리스도
347일	몬1	기적의 편지
348일	딤후전1~6	예수의 선한 일꾼
349일	딤후1~3	희망의 상속자
350일	딤후4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트랙 7 공동서신 9권		
351일	히1~4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352일	히5~10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353일	히11~13	삶으로 증거 되어야 할 이름, 예수
354일	약1~5	행함, 믿는 자의 움직임
355일	벧전1~5	소망의 반석
356일	벧후1~3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357일	유1	믿음을 위한 투쟁
358일	요일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359일	요이1, 요삼1	사랑과 진리의 조화
360일	계1~3	교회를 위한 성령의 권면
361일	계4~7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일곱 인
362일	계8~11	일곱 나팔의 심판과 순교자들
363일	계12~15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364일	계16~18	공의로운 심판과 준비된 미래
365일	계19~22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부록 II. 통성경 30주 학습과정

STEPS	주	강의 제목	통독성경
PRE-STEP1 : 그 순간 PRE-STEP2 : 성경과 영성	1	왜 5세인가?	1-12일
	2	그 순간	13-24일
	3	성경과 영성	25-36일
STEP1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 7가지 질문	4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7-48일
	5	7Questions I	49-60일
	6	7Questions II	61-72일
STEP2 하나님의 마음	7	하나님의 마음 1-5과	73-84일
	8	하나님의 마음 6-11과	85-96일
	9	하나님의 마음 12-20과	97-108일
STEP3 성경줄기 I : 모세 5경	10	통성경 길라잡이 1-4과	109-120일
	11	통성경 길라잡이 5-8과	121-132일
	12	통성경 길라잡이 9-11과	133-144일
STEP3 성경줄기 II : 왕정 500년	13	통성경 길라잡이 12-14과	145-156일
	14	통성경 길라잡이 15-17과	157-168일
	15	통성경 길라잡이 18-19과	169-180일
STEP3 성경줄기 III :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16	통성경 길라잡이 20-21과	181-192일
	17	통성경 길라잡이 22-24과	193-204일
	18	통성경 길라잡이 25-26과	205-216일
STEP3 성경줄기 IV : 4복음서	19	통성경 길라잡이 27과	217-228일
	20	통성경 길라잡이 28과	229-240일
	21	통성경 길라잡이 29-30과	241-252일
STEP3 성경줄기 V :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22	통성경 길라잡이 31과	253-264일
	23	통성경 길라잡이 32-38과	265-276일
	24	통성경 길라잡이 39-40과	277-288일
STEP4 성경을 통통한 기도	25	성경 기도 이야기 I	289-300일
	26	성경 기도 이야기 II	301-312일

	27	성경 기도 이야기 III	313-324일
STEP5 이야기 전도	28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325-336일
	29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	337-348일
	30	예루살렘 성전과 5대 제국	349-365일

부록 Ⅲ. 남일교회 ‘통성경 학습과정’ 및 ‘1년 1독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설문지

작성자 : 배영준 목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통성경 학습과정’ 과 ‘1년 1독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를 이수한 후의 효과를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므로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어보시고,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서술형으로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내용은 논문을 쓰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1. 자기소개(성명, 나이, 성별, 직업, 결혼유무, 자녀, 직분, 봉사하는 부서 등)
2. ‘통성경’ 을 접하기 전과 후, 당신의 성경 이해나 성경 읽기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 ‘통성경’ 을 공부하는 가운데, 당신은 어느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4.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주일 예배나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설교의 이해, 교회 분위기의 변화 등)
5.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6.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소그룹(구역, 속회) 활동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7.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봉사활동(성가대, 찬양단, 교사, 식당봉사, 남녀선교회 등)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8.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9.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10.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가정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부부, 자녀, 부모와 관계)

11.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당신의 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친구, 이웃 등)

12. ‘통성경’ 에서 가장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3. ‘통성경’ 에서 가장 나빴거나 싫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4. ‘통성경’ 이 다른 성경 공부 방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통성경’ 을 이수한 후,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16. 당신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17. ‘통성경’ 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18. 그 외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 Banks, Robert.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 in Their Historical Setting*.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0.
- Bardin, Todd. *The meals of Jesus: Finding Our Place at God's Missional Table*. Oviedo, FL: EA Books Publishing, 2014.
- Birkey, Del. *The House Church: A Model for Renewing the Church*. Scottdale: Herald Press, 1988.
- Kirby, Gilbert. *"The Emergence of the House Church Movement" in the Challenge of the Housechurches*. Oxford: Latimer House, 1988.
- Kramer, Fre F. *Jesus the Light of World*.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33.
- Walker, Andrew. *Restoring the Kingdom: The Radical Christianity of the House Church Movement*. Guildford, England: Eagle Publishing, 1988.
- Zdero, Rad. *The Global House church Movement*. Pasadena, California: Wiliam Carey Library, 2004.

번역서적

-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1999.
- Beckham, Bill. *The Second reformation*.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제2의 종교개혁*. 서울: NCD, 2010.
- Cole, Neil. *Church 3.0: upgrades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안정임 역. *교회 3.0*. 경기: 예수전도단, 2012.
- Edwards, Gene. *How to meet in homes*. 이남하 역. *오래된 교회 가정집모임*. 대전: 대장간, 2013.
- Icenogle, Gareth.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원,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 Kreider, Larry. *House to House*. 김윤아 역. *가정교회를 일으켜라*. 서울: 프리셋트, 2011.
- Kreider, Larry, Floyd McClung. *Starting a house church*. 유정자 역. *가정교회란?* 서울: 웨키나, 2009.
- Thiessen, Henry C.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Simson, Wolfgang.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황진기 역. *가정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tark, Rodney. *Rise of Christianity: a sociologist reconsiders history*. 이현수 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 Stott, John R. W. *God's new society*. 박상훈 역.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 Trudinger, Ron. *Cells for life*. 장동수 역. *가정 소그룹모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Watson, David. *Discipleship*. 문동학 역. *제자도*.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Wrightsmen, Bruce. *The church*. 김득중 역. *교회의 역사와 사명*. 서울: 키클디아사, 1991.

한국어서적

- 박승로. *가정교회*.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 산업능률대학종합연구소. *지적사고의 기술*. 서울: 미래의창, 2008.
-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마음 훈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 즐기*.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이다 랫츠통*. 서울: 통독원, 2007.
- 조병호. *7가지 질문*. 서울: 통독원, 2015.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서울: 두란도서원, 2015.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논문, 잡지

-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 2016, 395-428.
- 조진모.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역사 이해 연구.” *신학정론* 26, 2008, 85-122.
- 윤광석. “1년 1독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에 대한 연구-이리어양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 이동환. “살아 숨 쉬는 성경지식과 현실의 통찰력 ‘성경통독’ 으로 키웁니다.” *목회와신학*. 2012년 3, 48-52.
- 조병호.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2012년 3월호, 132-137.
- 박정흠. ‘오직 성경으로’ 에 주목하라. 한국기독교공보. 2014년 1월 13일.
- 백성호.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년 5월 1일.
- 이대웅.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 기독교 ‘제3의 물결’ .” 크리스천 투데이. 2014년 1월 13일
- 이병모. “유럽 신세대 새교회운동.” *국민일보*. 2001년 1월 8일.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Youngjune Ba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ug.13, 1974

Parent`s Names: Changgyu Bae and Bowol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Chungryang High School 303, Wangsan-ro, Dongdaemun-gu, Seoul, South Korea.	Diploma	Feb. 12, 1993
Collegi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B.Mus.	Feb. 26, 2000
Graduate: Hyupsung University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South Korea.	Th.M.	Feb. 17, 200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Youngjune Bae

Name typed

May 4, 2018

Date